

남녀노소 함께

Zot 시상증이 돌고있다.

쉬어가는 페이지

To 법대여학생회!

비상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는 절대로 포복하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적차이의 윤리실현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 : 살맛#1 한림대 여성행동위 레드 수원대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소식지 단독비행 Flyng Solo 2001년 2월 28일에 당신과 만납니다. 참세상 go smsm 011 9091 1534 myhome.naver.com/flyingsol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비행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적차이 윤리실현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이 기획하고 살맛에서 편집한 「단독비행」이 2001년 2월 29일 당신과 만납니다



Flying Solo

CONTENTS

시대 읽기

Channel 2001' II 행동의제

Do it now

'직장내 성희롱'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강화 신호탄: 모성보호 축소/폐지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我作我作 (아작아작)

군대 내 성폭력

2001'살맛나는 세상 운영에 대한 단상

여성주의적 질서/ 자치적 운영원리에 의한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억에서 역사로

엘리너 란스와 대화

새내기와 함께

쉬어가는 페이지

비행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에는
절대로 포박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여성들이 함께 하는 Flying solo 단독비행의 예기치 못
했던 즐거움을 위하여

단독비행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강화/ 성별화된 폭력에 맞선 급진적 투쟁을 기획하자

시대읽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타당한 항로를 찾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Channel 2001'

I. 정세전망

INTRO

하나.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관습의 체계이다.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가부장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라는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든 개별 남성은 지배적 위치에 있고 모든 개별 여성은 종속적 위치에 있다는 일반화된 도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인종주의 등의 다른 모순과 접합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제는 사회 각 구조들의 관계 속에서 작동 원리와 형태가 변화하여 왔다. 때문에 현 시기 변화하는 여성 종속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여성 종속의 지속과 강화라는 상황에 전제되는 명제가 지배-종속이라는 개념을 개별 남성-개별 여성이라는 도식에 흡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성할 수 있는 여성 정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담지하는 해방에 대한 신념 역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현 시기 변화하는 여성 종속의 방식과 작동원리를 명확히 인식하는 속에서 여성의 일상에 침투해있는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는 것을 통해 가부장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와 실천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둘. 수세기를 걸쳐 이루어진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페미니즘적 발전이나 남한 1세대 페미니스트의 부분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관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종속은 지속되어왔다. 현재의 가부장제는 다양한 통제전략을 각 영역에 침투해있는 자본주의에 접합시켜 고안해내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자본 축적은 가부장적 관계 속에서 주변국 여성에 대한 착취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 유연화는 여성의 주변부 편성을 이미 일단락 지은 상황이다.

Channel 2001'

1. 여성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전략의 고안: 보수적 상념론과 성 상품화 메카니즘의 공존
 2. 가부장적 담론과 기체의 재생산 영역 여성에 대한 폭력
 - 2-1. 이윤중심적 담론과 '보여주기 식' 정책화의 반성폭력 운동의 공전
 - 2-2. 상매 메카니즘의 고착화와 경로의 다각화
 - 2-3. 직장 내 성폭력
 3. 고착화된 여성의 주변화와 초과착취: 노동 시장에서의 가부장적 고용 전략
 - 3-1. 세계 체제화에서의 여성
 - 3-1-1. 세계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
 - 3-1-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여성노동력의 주변·비숙련·비정규직화
 - 3-2. 노동 유연화: 새로운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
 - 3-2-1. 여성 우선 해고
 - 3-2-2. 여성 중심의 비정규직화
 - 3-2-3. 여성의 이중노동 증가 가부장적 전략
 - 3-2-4. 특수고용직 자본과 가부장제의 최신 고용 전략
 - 3-2-5. 구조주의 부재
- § 최근 모성보호 축소·폐지 관련 흐름
(보편) 위험한 성과 여성부로의 확대기판

남한의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성에 대한 이중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가 고안해낸 상품화 경로의 다각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주변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는 고착화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개선은 가시적인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역풍으로 치닫고 있다.

1. 여성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전략의 고안 보수적 성담론과 성 상품화 매커니즘의 공존

여성의 종속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성성에 대한 통제이다. 여성의 성, 성활동,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역할로서의 성 등을 정치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해 도출되는 담론 구성과 실천에의 노력은 페미니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전략들이 고안되고 유지되는 중심에 성성 통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성은 성기 중심적인 의미로 국한되어 개념화되기 때문에 쾌락과 동일시되며 유교적 관념 하에서 도덕적 타락으로 귀결되는 본능 혹은 충동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성에 대한 엄숙주의적 관념은 성인의 성과 성인이 아닌 이의 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이는 성인=남성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권력으로서의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화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발화 자체가 금기시되기 때문에 여성은 가부장적 구조하에서 객체로, 남성에 의한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여성의 성이 발현되는 유일한 사회적 허용은 성적 대상화 혹은 상품화의 경로를 통해서만이다.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성의 강요와 대상화된 여성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여성의 성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 통제의 기초로 자리하게 된다. 때문에 여성의 성성을 정치화하는 것은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이중적 성규범의 잣대로 여성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다.

최근 성성에 대한 통제는 인터넷, 비디오 등의 자본의 거대 유통 구조하에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가부장적 관념은 성인 남성의 성욕을 관음증으로 포장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는 남성의 성욕이 사회적 역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 통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은폐하는 것과 동시에 성 상품화의 주요 소비층으로 남성집단을 위치지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백지영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이 익명 대중으로서의 남성집단에 의한 개별 여성

의 성성 통제는 관음증과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만을 대립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 매커니즘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여성은 의도적으로 삭제한다. 성성 통제의 변화되는 방식 가운데 가장 최신형태라 할 수 있는 '실제 성생활 엿보기 식의 몰래카메라'는 단순히 한 여성 연예인의 스캔들이 아닌, 고착화된 가부장적 관념(이중적 성규범: 순결 이데올로기·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과 자본주의 매커니즘(성 상품화의 유통구조) 하에서 개별 여성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몰래카메라와 관련,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촬영한 증거가 없을 때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제재도, 철거도 할 수 없다. 거기에다 몰카비디오는 촬영, 제작, 판매 등 각 단계가 철저히 분화된 체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유통된다. 때문에 당국이 단속을 나서도 고작 비디오를 파는 가게 정도만이 걸려들 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테이프를 제작한 사람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사건과 담론은 주로 사이버 상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과 보수적 성 담론 하에서 여성의 발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여성 일반을 이중적 성규범으로 다시한번 통제하게 된다. 즉 백지영에서 가해였던 가부장적 시선들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성성 통제는 현재 인터넷 성인 방송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제재 역시 '선정성·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에 대한 이중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성에 대한 엄숙주의에 의한 규제와 단계화된 매커니즘에 의한 성 상품화의 확대가 공존하는 것이 남한 사회 성문화의 현주소인 것이다.

2 가부장적 담론과 가제의 재생산 양역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델화'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구성되고 있는 담론과 관련 법, 제도 등의 추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입각, 그에 따른 저항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가부장적 체계 속에서 성별화된 폭력은 일상 영역에서 심화되고 지속되며, 사적 영역으로 편성되므로 개념과 시각이 선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폭력의 연속성(1)

1)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gender violence)은 사적 혹은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gender)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한다. 흔히 성폭력이라 불리는 개념은 강제적인 성관계로 한정된다. 하지만 성별에 의한 권력관계가 전제되는 속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강제행위, 안전 모두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닌 사회적 억자로 규정되고 학습된 계층이며, 따라서

이라는 설정 하에서 현제를 읽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1. 이슈중심적 담론과 '보여주기 식' 정책하의 반성폭력 운동의 공전

최근 성폭력은 '원조고재', '여성 연예인의 비디오 파문' 등의 개별화된 사건 형식으로 또는 사회적

으로 매우 회소해서(?) 충격적인 강간으로 각각이 다른 맥락 속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언론이나 사회적 반응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폭력은 여전히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며 (관념적) 수치상으로도 낮은 폭력일 뿐이지만 주목할 만한 문제가 된다. 또 정부의 정치제도 속에서 여성에 관한 전문 부위가 건설이 되고 법률이 제정되는 현상들, 즉 페미니즘의 제도화는 여성의 성적 인권이 향상(?) 되었음을 과시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권력 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의 이해와 여성의 저항은 계속되어 왔지만, 비정상적 소수 남성에 의한 윤이 나쁜 소수 여성의 피해 관계인 성폭력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접근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 기반과 올바른 담론의 부재는 현재 이 시각에도 지리한 성폭력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약간의 개념적 확장, 성과 관련한 문제의 사회적 관심 증대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다소 허점이 있는 성폭력(성희롱) 관련한 제도 마련을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 없다면, 불행하게도 성폭력과 관련한 정세는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조차 않는다.

현재 대학 사회는 지속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해왔던 기간의 여성운동 단위를 중심으로 성폭력에 있어서 상당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 반성폭력은 학생운동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은 곧 운동전영의 진보의 척도로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성폭력은 성별화된 일상, 즉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이며 여성 통제의 수단이기도 일차적으로 여성들이 그 중심에 존재하게 된다. 또 이러한

폭력적 권력 관계의 또 다른 구성 주체들에 의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되는 등, 피해자나 사건 해결을 위한 몇몇 소수 여성만의 과제가 아닌 대학 사회 전반의 문제로서 반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장되는 것 등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사회 역시 성별화된 사회 권력 구조를 거울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운 전영의 반성폭력 관련한 활동들은 운동 전영의 진보적 성향의 대변이나 도덕성 실추의 시각들 속에서 내규 제정이라는 획일화된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성폭력 운동은 전횡화된 일상의 남녀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형태를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과 괴리된 형태로 소수의 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방이나 처벌만이 강조되기도 한다.

2-2. 성매매 매커니즘의 고착화와 경로의 다각화

성매매는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을 실행한다는 지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닌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잘 조직된 사회적 행위이다.

기간 성매매의 대부분은 유흥업소나 알선업체 등의 성산업을 매개로 이루어져왔는데, 업소에 의한 매춘 여성 통제는 인신매매, 강제적 감금, 경제적 착취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때문에 성

2)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매춘, 윤락,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 규정은 성매매의 본질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것으로, 성을 파는 여성만이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윤락 행위등 방지에 관한 법률'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낙인은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찍힌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성을 사는 남성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단지 '상대방'으로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그에 비해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을 사는 이와 파는 이 모두를 드러낼 수 있으나, '춘'이라는 글자가 희소, 순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욕'이란 순화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암시하는 용어이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난 것이다. :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하는가' 중에서

3) 기존의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 음성화된 성매매 등에 유인된 매춘 여성과 열악한 지위는 최대지불로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성에게 종속되어 성적 상품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 성매매는 남성의 권력 관계 속에 놓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남성 지배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하게 된다. 즉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은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비하를 가능하게 하는 성매매의 존재 자체만으로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의 앞서는 '성매매된 육체'로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을 여성 일반에 보편화시킨다. 이를 통해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열등자 집단으로서 '여성'이 된다.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 영속하는 데 기여한다.

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물리적 강도에 의해 판단될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상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에는 사적영역,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내구타, 성적 학대에서부터 국가에 의해 조장, 묵인되는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집단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때문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은 수위나 정도의 차이로 인식되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하나의 연속선 상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별화된 현실이 허용된다면, 이는 어떠한 성폭력도 허용될 수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구성하게 된다.

산업은 여성을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성산업으로부터 떠나갈수 없도록 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게 된다. 최근 성매매는 가정집에 여성을 감금,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의 음성적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 정책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 성매매를 금지, 매춘 여성과 상대 남성, 그리고 알선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국가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미군, 주둔, 외화획득, 국민 보건, 매춘 여성에 대한 선도보호'의 명목 하에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법의 적용은 매춘 여성에 대한 범죄자로서의 가중 처벌, 사회적 낙인의 가중,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상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부 정책은 성매매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특정지역 존치, 보건중제도, 관광 정책 및 선도보호 정책 등으로 매춘여성을 이용, 통제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즉 처벌주의와 불법적 규제주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정책은 순결이 요구되는 가족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성을 통제하면서도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필연적인 것으로 상정, 이를 보호하는 이중규범에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 성매매에 대한 경각 분위기 속에서 성을 판 미성년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과 보호소 감금 등의 형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은 구조화된 성매매 유입 경로에 의한 피해자인 여성을 사회적 단절계층으로 편성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미성년 성매매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성을 사는 남성들의 경우 사회적 시선을 의식, '비밀 보장'이 되는 익명적 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익명 보장과 성매매 업소에 직접 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여성, 나이가 어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요자들은 끊임 없이 상대 여성을 교체할 수 있는 인터넷 성매매를 선호하고 있다. 남성의 익명이 보장된다는 것은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은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성이 사회적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그 안에 있는 여성은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들이 받는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몰아 경제적인 빈곤에 처하게 된 여성들의 경우, 생존전략으로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이다. 게다가 성매매의 경험을 한 여성들의 경우, 여성에게 가해지는 순결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배제되는 악

순환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최근 '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미성년 여성을 구속한 사례가 있었다. 성인 남성의 구속 처벌만으로는 만연하는 원조교제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미성년 여성에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용시켜 구속 조치한 것이다.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매춘 여성과 여성 일반이며, 이득을 보는 것은 명확히 남성과 자본이다. 따라서 매춘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과 선도보호가 아닌 탈매매를 위한 사회 구조책을 마련, 적용하는 것이 성매매의 억압 고리를 끊는 출발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성매매 매커니즘에 유입되는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정책 역시 미성년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념과 구조를 인식하는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원조교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 자체가 미성년 여성의 '자발적 선택'에 혐의를 두고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 속에서 성매매의 작동원리를 드러내는 담론 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다. 언론은 마치 '원조교제'가 현 성매매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돈이 필요한 미성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구조에 의해 미성년 여성의 성이 쉽게 상품화되는 것과 매춘 여성 전반의 인권 착취 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매춘 여성이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과 '원조교제'가 미성년 여성을 착취의 구조에 유입되는 전 단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담론 구성과 사회적 차원의 구조책 마련이 요구된다.

3 고착화된 여성의 주변화와 초과착취 노동 시장에서의 가부장적 고용 전략

3-1. 세계 체제하에서의 여성

제 3세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만병통치약'으로 처방되었던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은 경제안정화나 성장에 대한 어떤 가시적 성과도 없이 제3세계 민중에게 예외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만을 전가시켜 왔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의 파괴적 효과로 엄청난 회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제3세계 민중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격심한 생활수준의 저하에 직면하여 다양한 생존전략을 고안해내고 있다. 특히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국가에서 가계로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계로 가해지는 압력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으로 급속히 전환시켰으며 규제금융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제

생산노동, 여성중심의 노동유연화 등은 신자유주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 요건이며,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성별분업, 가족임금 등)를 통해 강화, 은폐되고 있다.

3-1-1. 세계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

70년대 이래 전세계적 자본 축적의 과정은 물질적 확장에서 금융적 확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금융에서의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와 기술혁신이 융합되어 이른바 '금융혁명'을 완수하기에 이른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사실상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에 다름 아니며, 80년대 이래 거의 모든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에서 추진된 금융적 탈규제는 자본의 국제적 거래의 장벽과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금융구조의 초민족화를 야기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주변부에 위치한 제3세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본을 통제할 수 없게끔 하였으며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을 증가를 초래했다.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속에서 중심국의 자본 관리, 노동력 관리 등의 권력은 주변국들에 침투의 강화를 거쳐 '배제'로 귀결되었으며, 초국적 자본의 형태를 띤 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 중심국의 자본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초국적 기업은 전 세계 노동자, 농민에 대한 초과 착취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 내의 새로운 계급 분화 국면을 야기한다. 제3세계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자국의 자본 통제에 의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주변국 자본가들은 국내 자본과 노동력을 해외로 빼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탈규제는 주변국 자본가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대부분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노동자에게는 전례 없는 지위약화를 자본가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게 된 것이다.

3-1-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여성노동력의 주변·비숙련·비정규직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소득 및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생계비 저하의 가속화, 정부보조금 폐지, 사회적 서비스 삭감 등을 통해 제3세계 민중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특히 고통을 받은 이들은 여성이었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시장의 탈규제와 의료 및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의 지출 감소에 의해 여성의 지위는 급속

도로 악화된다.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고용주들은 대부분이 미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여성에게 일차적인 해고를 감행한다. 해고된 여성들은 임시직, 가내하청노동 등의 비공식 부문(4)에 참가하게 되고, 임금 동결이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위협받게 되는 공식부문의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비공식부문에서 노동하게 되는 것이다. 현 경제개념에 의해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 지출의 대폭적이 감소는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정부차원의 의료지출 감소는 어머니, 아내의 보살핌 노동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 폭력, 가사노동과 유급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여성들의 스트레스 역시 증가한다.

3-2. 노동 유연화: 새로운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

8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던 외류업을 비롯한 전 산업영역에 걸쳐·비정규직으로의 재편이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그리고 가내하청 노동의 고용형태가 자본의 이윤 전략에 있어 유효한 방식으로 자리잡은 현대로 이어진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산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기업전략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목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고용모델 파괴와 비공식적 고용관계의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노동력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유연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데, 기업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숙련, 핵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과정상의 유연화가, 기업 외부 노동 시장에서는 주변 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자본은 노동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변 업무를 기업 외부 노동시장에서 실행하게 되고 여기에 미숙련 노동자들을 집중 고용한다. 이는 하청, 시간제 일, 초과 근무, 임시 계약, 그리고 노동 인구를 임시 노동자로 만드는 다른 과정들을 포함한다.

노동 유연화 전략은 노동 착취를 통한 자본의 이윤추구 이외에 또 한가지 기업과 남성에게 이

4) 정규직, 전문직 등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조건이 보장되는 부문들과 달리 노동시장 주변부 혹은 공식적 노동시장 주변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가내노동 등을 비공식 부문이라 한다.

5) 최근 논쟁들은 '유연화가 자본 구조 개편의 가장 최근 형태라고 제시하고 있다. 유연화의 핵심적 특징은 '핵심적' 노동 인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이, 주변적 노동자에서는 수직적 유연성이 발전하는 데 있다. 기능적 유연성이란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서, 회사의 매일매일의 요구에 따라 쉽게 여러 작업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 유연성이란 특별한, 회사에 특정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들은 회사의 매일매일의 요구에 따라 노동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방식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로운 효과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이 그것이다. 즉 남성은 고위 임원직,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은 봉사, 조력활동, 하급 육체 노동, 생산직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뿌리깊은 평가절하 작업 속에서 여성=비숙련=저임금이 라는 도식이 노동 유연화 전략에 있어 전제로 고착화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통해 낮은 보수와 낮은 지위 하에 여성노동자들을 분리편성하고 어떤 분야 혹은 모든 고용 분야에 여성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배제의 형태를 띤다. 여성들은 숙련노동, 정규직에서의 배제와 비공식 부분에서의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으로서의 착취라는 두가지 동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여성들은 고용의 가부장적 전략을 전제로 한 현 노동 유연화 속에서 배제와 성별 분리의 착취구조에 대한 어떤 식의 사회구조적 적용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여성들을 대거 주변부 노동력으로 편성하는 것을 일단락 지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자본과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통해 남성 노동자, 남편, 자본가 등의 구체적으로 이익을 보는 소수 집단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전략들로 오래된 '공모'를 유지시켜 왔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인력을 요구한다' 라는 기업과 정부의 강변은 현재의 여성 노동의 주변화라는 상황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들을 분리, 배제하는 고용 전략에 전제가 되는 이데올로기와 구체적 상황들을 제시하여 확장된 권리로 여성노동권 투쟁이 가능한 몇 가지 전제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3-2-1. 여성 우선 해고

자본주의 산업화 이래 여성은 경제위기 때마다 충격 흡수층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가족의 생계 책임자는 남성 가장이며, 가장의 임금은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어야 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남한에서의 경제위기와 여성 실업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이미 서구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주는 여성을 해고하거나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남편들은 부인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되므로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용주와 남편들은 모두 이득을 본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 임금제는 남한에서 실행된 적이 한번도 없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남성 가장 1인의 노동에 대해 가족 전체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지급된 적이 없음에도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여성우선 해고에 있어서 기업, 정부, 가부장적 노동조합에 의해 합의된 여성 배제 전략으로 고착화되었다.

남한의 인원 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정리인원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조직의 가장 힘없는 계층이 일차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 특히, 여성들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여성들이 그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및 금융업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인력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힘없고 주변화된 계층을 중심으로 인원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여성 우선 해고는 노동조합의 저항이 약할 경우 거의 기업 측의 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존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명예퇴직'을 택하는 사례가 98년 농협 사내부부 우선 해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기존 여성의 경우 "언젠가는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데 나가겠다"는 심정으로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개 명예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리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며, 대기 발령 등 강력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의 위협을 통해 여성들을 우선 해고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별화된 구조조정은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는데, 한국통신에서 부부사원 표적퇴직, 인력풀제 운영, 계약직 해고 등의 인력감축을 중심으로하는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희망퇴직'이라는 허울로 부부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대기발령시킨다는 식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부부사원 남편에게 대기발령이 났으니 희망지가 어디냐며 강제적으로 대기발령 희망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남편의 노동권을 불모로 여룰 수 없이 여성 노동자들이 퇴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것이다.

3-2-2. 여성 중심의 비정규직화

6) 농협의 구조조정에서 상대적 생활인정이라는 명목하에 사내부부사원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은 성차별적 부당해고 혐의가 있음을 노동부가 인정하였고, 여성특위도 사내부부를 인력감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97년도 경제위기 이후 여성 우선 해고는 이미 노동 유연화 전략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농협 부부 사원 우선 해고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소송은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여성 부서 인력의 집단 해고와 여성 직종의 폐지, 희망 퇴직 권유 등의 일련의 상황들은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해고 이후 여성 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비정규직화 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성 직종, 여성 부서의 폐지, 또는 여성 위주의 인원 감축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이후 필요한 여성인력을 파견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부당 정리해고가 여성의 비정규직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파견업의 합법화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부당 정리해고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중심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가부장적 노동조합, 정부, 그리고 사용자 삼자 간의 묵인 아래 이루어져 왔고, 전술했듯이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배제는 이미 안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주변화된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생계를 위협하는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된다. 다음 사례는 70%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3-2-3. 여성의 이중노동 증가: 가내하청 전략

노동 유연화 전략은 경제안정화나 성장에 대한 어떤 가시적 성과도 없이 여성에게 예외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만을 전가시켜 왔다. 이는 유연화의 파급적 효과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여성들은 격심한 생활수준의 저하에 직면하여 다양한 생존전략을 고안해내고 있다. 특히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국가에서 가계로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계로 가해지는 압력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으로 급속히 전환시켰으며 구제금융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다.

남한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내 하청은 국내외적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내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을 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과 가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가내 작업을 감수하게 된다. 가내 하청 노동력의 대부분은 가사일과 유급 노동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일

악한 작업 환경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여성의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은 여성들의 빈곤화, 나아가 가족 생계 자체의 빈곤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3-2-4. 특수고용직: 자본과 가부장제의 최신 고용 전략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력 약화,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하는 노동 유연화 정책의 표적층에 대거 여성들이 편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골프장 경비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에 종사하는 100만 노동자들은 그 동안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일해도 퇴직금 한푼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며, 일하다 다쳐도 개인의 부주의요, 과로로 유산을 하여도 개인이 병원비를 대는 등 산재보 험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항의하면 다음날로 해고되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근로조건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에 따라 이런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성 CC 200여명의 특수고용직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경기보조원)들은 현재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상식적으로 골프장이 캐디가 없이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성 CC는 '노캐디'를 선언하며 모든 경기보조원들을 거리로 내몰았는데, 이것은 노조를 무산, 분열, 와해시키려는 임시적인 수단이며 조합원에 대한 협박에 불과한 것이다. 더군다나 사측은 일방적인 해고와 더불어 모든 캐디를 용역화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조설립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골프장이 캐디와의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8월 24일 강병준 사장과 노우정 위원장이 함께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한성이 무노조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 한성 CC 경기보조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노동부는 판결을 미루며 지방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 판결에 따라 노동부도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일관하기도 하였다.

3-2-5. 구조책의 부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본노동통계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그 규모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태조사와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

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회피를 위해 고용형태를 다변화시켜왔고, 이로 인해 기준에는 고용(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 신분에서, 이제는 위탁계약자,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변하여 노동하게 된다.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 이후,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기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전략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은폐시키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확보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서 제출, 대정부, 국회 정책요구 활동,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어떠한 교섭도 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회피, 지연하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조합법상의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십일 간의 파업을 통해서만 겨우 신고필증을 내어주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삼권이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들어서도 노동부와 정권은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준하는자'로 분류하여 체불임금, 해고, 산재 등 일부조항만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심지어 경총은 "개별사업주가 무슨 근로자냐"면서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자는 정부안 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실상의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해 널리 퍼져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구조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연대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이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이 부당

한 문제로 호소하는 기관인 노동부, 여성부, 노동위원회에 여성전담 근로감독관, 여성전담 심사관을 두고 엄격한 자격심사,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필수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격 없는 담당자의 징계문제, 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의 재심받을 권리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론) 위험한 성과 여성부로의 확대개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계의 활동은 '남녀평등'을 전제로 한 법, 제도 측면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여성 특위가 신설된 이래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법, 제도는 개념 자체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한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활동 역시 보여지는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차원의 거시적 성과들을 얻어내는 데 급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이 정부기관에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특위의 여성부 개편을 여성계의 성과인양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로의 확대, 개편에 있어서도 기간 여성특위의 실내용과 실질적 적용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비판 보다는 여성부 고위직 인사에 집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여성부 승격이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승격 자체의 성과에만 만족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이 우려된다.

II. 정치적 목표 및 과제

2-1. 현 시기 변화하는 가부장제 통제전략을 맥락화 그에 따른 저항을 기획한다

▶인터넷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성의 성성 통제의 작동원리의 담론화가 요구된다. 인터넷 성인 방송에 대한 규제 흐름이 담지하는 가부장적 성담론: 통신질서확립법 등 보수적 성통제 :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과 성상품화를 조장, 확산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지속적 폭로가 필요하다.

▶성폭력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여학우들 자신의 확장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담론 확장이 요구된다. 구체적 시안에 대한 정세적 대응이 모호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인 쟁점화가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 학칙 제정 흐름이 학교 당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은 여성부 승격과 함께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하기에 기간 학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와 각 대학의 성문화 지형 속에서 반성폭력 담론 구성의 과정 중 학칙제정이 실물화될 수 있는 시점과 학교 당국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지촌, 산업형 성매매와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매커니즘의 가부장적 신념체계의 맥락 하에서 매춘 여성의 현실을 폭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에서 매춘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 그에 따른 사회구조적 마련에 대한 요구와 성매매의 개념 자체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에서 시작한 담론 형성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합법화나 '원조교제'등을 쟁점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취업을 고민하는 여학우들에게 고용에서의 성별분리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성 상에서 가부장적 고용전략을 담론화하는 데 유용한 기제이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자체를 성별화된 문화와 폭력으로 확대시키는 것로부터 실제 사례들을 폭로하면서 이에 대한 법,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 요구된다.

▶ASEM 이후 세계적 규모의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논의들이 도출하는 결과에 주목, 여성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착취와 성적 착취,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폭로한다.

▶노동법 개악 흐름에 대한 투쟁 속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시에 모성보호의 정치적 힘의 측면을 부각, 전반적인 고용에서의 성별 배제 맥락에서 모성보호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 요구된다.

2-2. 제도화된 페미니즘, 관변화된 사회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적 개입 속에서 급진적 반체제 여성운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현재 제도화된 페미니즘은 가시적 성과에만 착목하는 관변화된 여성계 흐름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정보 유통 경로 확보와 사회적, 담론적 영향력 담보라는 측면에서 관변화된 여성단체와 형식적 연대를 피할 것이 아니라, 반체제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견인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여성단체에 대해 명확히 전선을 긋고, 제도화된 페미니즘이 간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인권문제, 여성노동권 문제 등의 시안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와의 연대가능성을 타진한다.

2-3. 학여운 전영의 파편화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주체화 경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 충돌'을 기획한다.

▶파편화, 개별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학여운 전영과의 적극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나마 존재하는 연대의 틀거리는 성폭력 시안에 매몰되어 있고, 하기에 여성운동 단위들의 차이를 발전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성노동권을 기반으로한 연대가 있겠다. 현 학여운의 동향에 주목, 학여운의 실내용이 어떤 맥락을 지니는가를 인식하는 속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충돌을 기획해야 할 때이다.

▶여성노동권이라는 실 내용을 기반으로한 연대를 통해, 기간 시안중심 연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실 내용의 연대를 구축한다. 현재까지의 단위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의 연대가 형식적 연대 틀거리를 성과로 남긴 바, 차이에 대한 논의를 조직화하고 이를 외화하는 것을 통해 연대를 모색한다.

2-4. 통합적 행동의제 발굴을 통한 비국가 연대운동을 실물화한다.

단독비행

고용에서의 기부장적 전략강화/ 성별화된 폭력에 맞선 급진적 투쟁을 기획하자

시대읽기

2001년을 관통하는 전략적 행동의제



2001' 행동의제

1.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자치규약 제정을 2001년 대학사회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 속에서 배치,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구성

▶ 일상적인 성문화 진단과 사례 드러내기, 작은 단계에서의 과정 구성, 학교당국의 학칙제정 주도에 대한 실질적 대응

2.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조 설립 운동을 통한 비정규직 투쟁 속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에 비판적 이데올로기 구성과 실천 조직

▶ 여대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3. 성매매 매커니즘의 고착화 상황에 대한 대안적 이데올로기 구성, 매춘 여성과 다각화된 경로 속에서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 유입 현실 폭로와 실천 구성

▶ 매춘 여성의 비범죄화에 대한 공론화 운동을 통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및 실물화, 가치촌 현장활동, '원조교제'에 대한 비판적 이데올로기 구성

단독비행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문화, 폭력의 재생산

직장 내 성폭력

일상에 존재하는 성별화된 문화와 폭력은 여성들의 경험을 발화할 수 있는 '용기'에 의해서만이 깨질 것이다.



Do it now!

성별화된 문화와 폭력의 재생산: 직장 내 성폭력

성별화된 전략들에 따른 고용에서의 효과는 다양한 기부장적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다. 기부장적 성적 관습은 성별 고용 유형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내 성폭력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여성 노동자를 통제하도록 작용하며, 동시에 여성을 어떤 유형의 일에서 배제시키도록 작용한다. 배제적 효과는 과거에는 모두 남성 뿐이었던 직업 분야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장내 성폭력이 사용되는 형태로 드러나왔다. 그러나 직장내 성폭력이 전통적인 남성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에만 국한되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 직장내 성폭력은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확대될 수 있는 행동의 연속선 상에 있다. 일상화된 언어, 행동에서의 여성비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부터 물리적 폭력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이 더 이상 정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합창단에 있는 지휘자가 여성단원들을 직장내 성폭력 했다. 개인면담을 요구하고 방문을 잠근 후 몸을 쓰디듬고 단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에 갖다 대기도 했다. 전화를 하여 "나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늦은 시간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매우 불쾌했지만 나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에 불쾌감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노래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단원을 손을 잡으며 에너지가 생긴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몸을 밀착시켜 춤을 추기도 한다. 호감을 보냈다고 옷을 벗어보라고 한 적도 있었다. 벗지는 않았지만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가 내 손을 감싸 잡고 얼굴을 손으로 만졌다. 이제는 지휘자가 근처에만 나타나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소, 돼지 같다'는 말을 듣고도 껌소리 하지 않고 방실방실 웃어야 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성적 모욕을 주는 상사가 밥을 먹이고 하면 껌해서 찢리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상사가 '한번 하자, 한번 주자'라고 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농담처럼 웃어넘겨야 만 합니다.

-한성C.C 왜 노조가 필요한가 중-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직장내 성폭력은 고용에서 여성의 지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 동시에 가해자 남성이 쥐고 있는 '인사권'은 여성에 대한 보다 쉬운 폭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신고 등의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과 공포 상태가 되어야 이루어지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은 고착화된 여성의 불안정 고용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성 CC의 경우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파괴하는지를 드러내준다. "한번 하지" "한번 주라", 한성CC의 김종부 프로는 한성CC 경기보조원들에게 일상적인 성폭력을 자행해왔다. 이밖에도 김종부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술자리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김종부를 비롯한 몇몇 간부가 함께 한 이러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바로 "너 그만 두고 싶냐, 너 오늘 일하지 말아라"와 같은 협박으로 시달려야 했으며 실제 이런 협박 끝에 회사를 그만 둔 사례도 허다하다. 술자리에 대한 압력으로 하우스에 일찍 올라가게 된 경우에도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결혼한 경기보조원들에게는 "니 남편이 잘 해주냐?" "일주일에 몇 번하냐?" "나는 마누라랑 밤새했더니 피곤하다" "내가 이래봐도 물건은 좋다"라는 등의 인간 이하의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면 뒤에 대고 하는 말이 "냄비뚜껑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저런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돼.", "야야, 저 걸음걸이 보라, 찻탕이가 무거워 걸기나 하겠냐"하며 여성이면 경기보조원이든 손님이든 성적인 욕설과 무시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재우 과장(前 마스터)는 백 배치시나 점호 시간에 경기보조원들에게 모델감을 주는 '소·돼지 같다, 면도칼로 그어 버린다, 니들이 인간이냐?'와 같은 비인간적 언사들을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다.

또한, 김종부는 17년동안 상습적으로 경기보조원들을 직장내 성폭력과 성추행을 해왔다. 1년에 한번씩 있는 조장선출과 그에 따른 회식 또는 각 조 회식 자리에서 김종부는 간부들에게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술따르기를 강요했다. "NO"라고 하면 그 말을 무시한채 반복적으로 술따르기를 강요 하는데 거절한다면 그 경기보조원은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해야 한다.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그 경기보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일을 내보내지 않아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도 있다.

무조건 김종부의 말을 들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NO라는 말은 있을 수 없으며 OK라는 말만 들기를 원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소·돼지 같다'는 말을 듣고도 껌소리 하지 않고 방싹방싹 웃어야 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성적 모욕을 주는 상사가 밥을 먹자고 하면 딱해서 팔리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상사가 '한번 하지, 한번 주자'라고 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농담처럼 웃어넘겨야 만 합니다

·한성CC의 노조가 필요함

특히, 낮은 연령의, 미숙한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 직장내 성폭력은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취직 후 업무는 3년간의 고등학교 교육과 23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하잘 것 없는 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로 여겨 직장내 성폭력, 저임금등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에 있고 따라서 직장내의 위계질서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저항, 거부, 문제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1년 먼저 들어온 남자주임이 모든 여직원들에게 무조건 반말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여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이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남자주임은 외부에 알리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남자직원이 나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평소에도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함부로 퍼부었으며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싸았어요? 밤에 무슨 짓을 했기에..."라는 등의 직장내 성폭력을 일삼는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조치 없이 가해자의 형식적인 사과로 끝났다.

남녀차별 금지법과 고용 평등법 개정의 흐름 속에서 남녀평등이라는 전제하에 직장내 성폭력은 어느정도 이슈화 되어왔고, 인식지반 역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적용을 받기 힘든 일상의 범위 안에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폐되기 쉬운 뿐 아니라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에게 혐의를 부여하는 남성중심적 성담론으로 인해 신고 자체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비하, 차별적 언설들이 가능한 성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은 사건 자체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피해 경향이 판단된다는 것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작동원리인 가부장적 구조를 도덕적 문제로 소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은 업무 시간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지위를 악용, 퇴근 후 근무장소 이외 즉 회식자리나 남성 상사에 의해 강요된 사적 술자리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회식자리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고용 평등법에 의해 '업무와 연결되는 자리에서의 직장내 성폭력'은 직장내 성폭력에 해당된다'라며



직장내 성폭력으로 판결 받은 사례가 몇 건 있으나, 기준이 '업무와의 연결'이라는 것이 한계적이다.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의 일상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이해에 기반해 고용에서의 여성 배제라는 측면에서 업무와의 연결성을 파악해야 한다.

[직장내 성폭력 불성립 사례1] 지난해 4월 모 회사 총무과장 A씨는 퇴근시간에 회사내 주차장 부근에서 우연히 직원 B씨를 만나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A씨는 "승용차 트렁크에 포르노 비디오테이프가 있고 비디오방을 여관처럼 개조, 침대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으니 같이 보자"는 등의 언어적 직장내 성폭력을 했다. ▲결과 승용차 동승은 직장 내 지위 및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이며 언어적 폭행도 경미, 직장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직장내 성폭력 불성립 사례2] 지난해 8월 모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A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주임, 인사 좀 하지"라며 신문지로 B씨의 엉덩이를 세번 때리며 "결혼을 했으면서 직장내에도 모른다"고 나무랐다. B씨는 모멸감을 이유로 직장내 성폭력 사건으로 주장했다. ▲결과 직장내 성폭력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실과 함께 사회통념상 '합리적·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직장내 성폭력 성립사례] 모 병원 회식자리, 피해자 A씨는 총무과장 B씨로부터 원장과 진료부장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팔을 잡고 원장과 진료부장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강제로 술 따르기를 시켰다. ▲결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직장내 성폭력으로 판결 받았다.

사례와 같이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신고된 사건 자체에서 이루어진 가해자의 '행위', 그리고 '업무와의 연결'이기 때문에 신고 이후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 개념 자체가 구체적인 상황과 시점에서 발생한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따라서 성별화된 일상의 연속선 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성별화된 폭력의 개념으로서 직장내 성폭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 구조에 침투해 있는 가부장적 성별 관계: 성성에 대한 통제 이데올로기가 고용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인식하는 속에서 고용이라는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발동하는지에 대한 폭로가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구조적 실질적 적용을 위한 경로마련이 시급하다

성별화된 문화와 폭력이라는 설정 하에서 직장내 성폭력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 이데올로기 자체의 변화가 강력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단, 직장내 성폭력이라는 사안 자체에 걸려드는 법, 제도의 개선이 문화 자체가 여성적 시각을 담지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일 사안으로서의 직장내 성폭력을 인식, 이에 대한 법, 제도가 유일한 구조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미조직화되어 있고, 따라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신고 위주의 대응이 일차적으로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경로마련이 시급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 구성요건」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할 것"

"지위를 이용한 경우일 것"

전술했듯이 직장 내 성폭력은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행위 자체를 중점에 두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대 해석하는 것, 가해자 성립 조건에 거래처 직원과 고객 등 여성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맺게되는 관계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사건 전후의 과정에서 성차별까지 포괄하여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는 조항은 상사에 의한 성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부하직원이나 동료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피해 여성의 문제제기를 은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항들이 첨가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을 피해자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남녀차별과 직장내 성폭력 사건 담당관들의 엄격한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노동부, 여성부, 노동위원회에 여성전담 근로감독관, 여성전담 심사관을 두고 엄격한 자격심사,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필수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자격없는 담당자의 징계문제, 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의 재심받을 권리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남녀차별과 직장내 성폭력 사건 담당관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필수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자격없는 담당자의 징계문제, 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의 재심받을 권리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문제로 호소하는 기관인 노동부, 여성특별위원회, 노동위원회에 여성전담 근로감독관, 여성전담 심사관을 두고 엄격한 자격심사,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필수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자격없는 담당자의 징계문제, 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의 재심판을 권리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Do it now!

남녀차별 금지법 이후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피해 여성의 신고 건수는 증가했으나, 기간 대부분의 사건이 접수 이후 해결 과정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부는 직장내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목표 중 하나로 채택, 이와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남녀차별 금지법이 강제력을 갖게 되면서,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 신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속속 제출되고 있는 직장내 직장내 성폭력 판례들은 법 자체의 한계와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적용부재를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부는 여성부 신설 이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증하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여성부의 대응 역시 여특위의 한계지점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기관의 승격 자체가 성과로 주목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성과로 가시할 것인가에 급급해서 여특위의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 이후 신고 건수 증가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오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 적용을 위한 경로마련과 직장내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롯데호텔이 지난 31일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가 작성한 인사사고과를 토대로 직장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를 재계약에서 탈락시킨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기에 최근 사례, 판례들에 대한 폭로 등의 직접행동이 요구된다.



단독비행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 강화의 신호탄

모성보호 축소/폐지

우리의 임무는 고통의 분노를 결의하는 분노로 바꾸는 것이다.



Do it now!

특수고용직들은 늘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마음대로 그만둘 자유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J학습지 수원지국의 이모(35)씨는 지난해 7월 결혼 7년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를 사산했다. 임신과 함께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측이 퇴직예정교사들이 밀려 있다며 학습지 관리를 계속 떠맡겨 두달 이상 근무를 더 했기 때문.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하루 20여집을 손가쁘게 돌아다니다 결국 하혈을 했고 사직서 제출로부터 한달 이내에 수리하도록 돼 있는 회사규약은 종이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이씨는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직장을 떠났다. 6년간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나 보험처리 하나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 개정에도 반대한다.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 (경제5단체 회장단)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를 근로기준법에 명시, 실행하라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을 담지한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은 여성우선해고, 신규여성실업의 과정을 거쳐 여성노동력을 대거 비정규노동으로 편성하는 것을 완결짓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통제전략을 고안해내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주변화, 빈곤화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자본의 위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돌파하려는 자본과 정권은 남한사회 뿌리깊은 성별분리관념을 이용, 노동시장에 대한 분리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자를 일차적 타겟으로 설정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모성보호 축소/ 폐지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모성보호 확대 개정안을 입법화하라!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 적용을 보장하라!

출산휴가 70일 확대하라!

태아검진휴가제 도입하라!

간접차별관련 상해 규정을 명시하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30%임금지급 보장하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근거법에 명시하라!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입법화하라

Frying Solo 단독비행

경제위기 때마다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성보호 논의 역시 법,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통제전략의 본격화를 예고해주는 신호탄이라 판단된다. 모성보호 비용을 여성 개인에게 전담하는 것은 주변화된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동시에 여성중심의 비정규직화를 지속 가능케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실현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여성노동권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는 한번도 시행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년간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선심정책에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왔고 경제위기 때마다, 노동법 개악과 함께 일차적 쟁점으로 도마위에 올라왔다.

정부여당은 올해 7월부터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비용의 사회보험 분담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법 개악 관련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를 거치고도 안전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표류중이어서 사실상의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입법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부로의 확대, 개편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도모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은 총선공약이었던 모성보호 확대 입법화를 스스로 무화시키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여성계를 체제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노동유연화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착취 전략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착취라는 실내용과 남녀평등이라는 허울을 동시에 지닌 김대중 정권의 본모습은 현재 모성보호 축소, 폐지를 시작으로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려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전면 철회하고 경제 상황과 재정문제, 여성 고용의 활성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 개정에도 반대한다.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라는 경제계와 모성보호 확대 입법화 의지가 전무한 여야의 합의 하에 모성보호 확대는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명백히 가부장적 자본의 논리 그 자체인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오히려 경제위기 속에서 강력하게 담보되어야 할 여성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강력히 전제하면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성보호 조항이 축소된다는 것은 여성고용 전반의 조건 악화를 가속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기에 자

본의 비용 감축에 일차적 전제조건이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의 맥락 속에서 모성보호가 인식되어야 한다. 모성보호 축소·폐지 논의는 실제적인 적용 고용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관련되는 정치적 쟁점인 것이다. 모성보호 확대 입법화는 단순히 법, 제도 상의 단일사안이 아닌, 노동 유연화 가속화와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 강화에 맞선 정치적 쟁점이다.

출산력 재생산과 경제위기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사회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성계의 주장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 이후 모성비용을 여성 개인이 떠맡게 되면서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초과착취가 본격적으로 가시되고 있다는 증거로 파악해야지, 출산력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기업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근거제출 또한 여성노동권을 아우를 수 있는 투쟁 속에서 모성보호 확대 입법화가 배치된 것은 아님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여성계는 정권 재창출 음모를 담지한 의도된 선심 '여성부 신설'을 환영하느라 반여성적 김대중 정권으로 편입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며 성별화된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선 급진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모성보호는 출산, 육아 등을 전담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동의 가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거 비정규직으로 유입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소한의 근기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성보호법의 적용은 실물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성보호 축소, 폐지 논의 자체가 여성노동자들을 광범위한 모성파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단독비행

전 세계 여성들의 이름다운 연대를 기억하라

38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차이가 힘이 되는 연대의 공간, 급진적 투쟁의 공간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The Season of Fighting!

1908년 3월 8일 공항에 의한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미국의 뉴욕의 룩저스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여기에 모인 15,0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아동 노동의 금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들이 채택한 슬로건은 '빵과 장미'였다. 이어서 1909년 미국 전지역 2만여 여성노동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10년 독일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은 이 날을 세계여성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90년간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당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조차도 없는 완전한 무권리 상태였다.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기업주의 착취와 억압을 저지할 길이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성별, 종교, 민족의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선거권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여성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선차적인 과제였다.

저임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도한 작업량 및 위험한 작업환경 등 가혹한 노동착취를 중단할 것과 여성과 임신에 유해한 작업금지, 산전산후 8주간의 출산휴가 등 모성에 대한 보호조치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바로 이러한 힘이 세계여성의 날을 탄생시킨 것이다. 1910년 전세계적으로 성장한 여성노동자들은 미국섬유노동운동의 기록제가 된 38 시위를 매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매년 38일이 되면 세계 각국의 수천 수 만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집회와 기념식을 갖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리를 행진하며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실천을 결의하는 날'로 기념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당과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과 수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38대회에서 역설한 한 여성노동운동가의 말대로 38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기억하고, 당신과 나의 투쟁을 더하는 노력일 것이다.

3·8세계여성의 날 창시자 클라라 젯킨

세계 38 여성의 날을 창시한 클라라 젯킨은 1857년 7월 5일 독일 작센 비더라우에서 클라라 아이스너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1878년 우수한 성적으로 라이프치히 사범대학을 졸업한 클라라는 연인이었던 러시아 혁명가 오싹 젯킨과 함께 사민당 건설에 참여하였다. 오싹 젯킨과 결혼한 클라라는 그의 성을 받아들여 클라라 젯킨으로 개명을 한 후 그의 남편과 함께 그 당시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떠났다.

파리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클라라는 특히 여성의 권리를 위해, 즉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그리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계급혁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1891년 독일로 돌아온 클라라는 그 이듬해인 1892년 사회주의 여성잡지인 "평등"을 창립하고 여성문제에 둔감했던 그 당시 사회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1907년 세계 여성사회주의자들이 독일에 모였고 이것이 제1차 세계여성대회이다. 이 회의에서 클라라는 초기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3년 뒤인 1910년 제 2차 여성대회가 코펜하겐에서 열렸으며 그때 그녀는 세계여성의 날을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녀의 건의는 대회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되고 대회가 열린 3월 8일 최초의 3·8세계여성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38 여성의 날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각국에서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여성해방이론의 기초를 세우

정치가이자 여성혁명가였던 클라라는 여성해방 이론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1889년 출판된 그녀의 책 "현대 여성노동문제와 여성문제"는 여성해방이론의 기초를 다지는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여성문제를 계급문제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녀의 이론에 의하면, 여성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거나 비슷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투쟁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녀는 여성운동도 계급운동의 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녀는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보았으며 그의 남은 여생을 프롤레타리아 여성해방운동을 위해 일했다. 그녀가 중상류층의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들과 연대하기를 거부했던 것이 현대 사람들에게 너무 외곬수적이지 않았느냐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계급운동의 한 맥락에서 이해했던 그녀의 철학을 이해한다면 그녀가 프롤레타리아 여성운동과 중상류층의 여성운동을 구분했던 것이 중상류층의 여성운동에 대한 배타가 아닌 보다 효과적인 여성해방운동을 위한 하나의 전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전운동가 클라라 젯킨

여성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였던 클라라는 또한 반전운동가이기도 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던 1914년과 1915년에 그녀는 제3차 여성대회를 열어 여성들이 세계평화에 앞장 서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요구하는 전단을 만들어 독일 전역에 뿌린다. 이로 인해 그녀는 4개월간의 구속생활을 하게 된다.

1920년 러시아로 이주한 그녀는 남은 여생을 세계 평화와 여성의 권리 그리고 노동해방을 위해 일하다가 76세의 나이로 모스크바에서 숨을 거둔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여성해방, 노동해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지는 그녀가 심장병으로 몸이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을 돌며 한해에 300회 이상의 연설을 하러 다녔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클라라 젯킨, 그녀의 76년간의 삶은 곧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이다. 그녀의 열정적인 삶의 한 열매인 38 세계 여성대회를 올리는 더 신명나게, 그리고 봄바람이 겨울의 칼바람을 몰아내듯 힘차게 맞도록 하자

38 세계 여성의 날 차이가 합이되는 연대를 위하여

기간 38 흐름은 사회여성단체들의 밀폐된 기획과 행사에 여운단위들의 개별적 참가 정도가 전부였다. 하기에 38의 본래적 의미에 입각한 조직화된 흐름을 집중적으로 기획해야 하는 시기로서 38을 기획해야 한다.

특히, 여성운동 진영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주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실천을 가져나갈 수 있는 38을 구성하자. 여성 종속의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정체성으로 여성들을 호명하고 여성들간의 차이를 긍정하는 여성연대로 통해 여성의 과제를 추출하고 실천의 의지를 확인하는 공간을 기획해보자.

여성에게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라

장애 여성인권 확보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반대! 의무고용 시 여성 고용 확대!

레즈비언 여성인권 확보

노동유연화 반대! 여성의 비정규직화 반대

모성보호 축소/ 폐지 반대

직장 내 성폭력 반대

매춘 여성 인권 확보! 성매매 특별법 제정의 실물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이주여성노동자 인권 확보

여성에게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 철폐를 선/언/한/다



단독비행

단독범죄구역 ICA?

군대 내 성폭력

我作我作 아직아직은 현재 정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글로 구성합니다



我作我作

단독범죄구역 - ICA?

새로운(?) 공간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이번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공중파를 비롯한 매스컴에서의 지대한 관심을 얻으며, 그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 안에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군대내에서 상관에 의해 저질러진 이번 성폭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벼운 정도로서의 사건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을 바탕으로 사건 자체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요구하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대중기피 현상을 보였던 것 등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성폭력 사건이 가능했던 곳, 사건이 일어나도 가벼운 징계 조치 정도만이 가능한 곳 그리고 사건이 공론화 되면 피해자인 여군의 행실을 둘러싼 담론만이 무수해지는 곳. 철저하게 위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군대내에서 여군의 성적대상화는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문화적 Area 속에서도 결코 이례적이지 않은 사건과 사건 이후의 과정들에 의해 확고한 검증을 이루고 있다.

예상 가능했던 담론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언제나 사건 자체와 동떨어진 담론들을 동반한다. 이번 군대내 성폭력 역시 예외일 수 없었으며, 언제나 치립기본적인 논의조차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게 아니었나 싶다.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 '도덕성의 실추'의 관점, '일반화된 여군에 대한 저열한 공격'들을 중심으로 여러 담론들이 줄을 이었다.

我作我作

아직아직

군대 내 성폭력

심맛나는 세상

소식지

Frying Solo 단독비행

'만약 그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의 담론은 여전하다. 모든 사회 구조와 관계를 거부한 채 상황적 객관성만을 인정하는 이러한 담론들은 대다수가 성폭력 사건에서 말해지는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피해사실을 왜곡하며 사건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 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으로 우리의 딸들 혹은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군대의 장군이라는 개념들인데, 우리의 딸? 이때의 우리는 딸들은 그들의 여성의로서의 존재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라는 소속 개념이 더욱 무게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군대의 장군만 아니었다더라도 용서될 수 있었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언제나처럼 이런 사건과 담론은 피해자가 속해있는 공간의 모든 여성을 일반화시킨 상태에서의 저열한 공격이 진행된다. 심지어 리더쉽의 부족등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부러 사건을 신고했다는 저열한 비난이나 여군 대다수가 전문성이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군의 능력 때문이라는 일반화된 여군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너무나 쉬운 대담

이번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접근들은 부적절할 수 밖에 없다. 아니 오히려 본질에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군대라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위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의해 여군이 성폭력을 당했다. 이것은 어떠한 객관성을 포장한 구차한 변명으로도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가해 장군과 피해 여군의 명확한 권력 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이었기에 왜 그 당시에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건을 키웠다는 식으로 결국 성폭력 사건임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여성의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행위이며 여성에게 커다란 폭력으로 기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판단될 수 없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주관에 근거한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사건 해결은 바로 이러한 (대다수가 여성인) 피해 사실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중위 사건의 고소로 육군은 현역 사단장 김소장을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징역 3개월이라는 가벼운 조치를 내렸으며, 징역 기간 중의 가해 장군의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 여군을 둘러싼 행실에 대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어 아직 사건은 완결된 상황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이미 법제도의 틀 내에서의 해결이 중심을 이루게 되어 대다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론의 영역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중위를 바라보는 것에 불과했던 것 같다. 이중위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논의와 담론의 지형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11 사상봉이 들고있다

쉬어가는 페이지

단독비행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강화/ 성별화된 폭력에 맞선 급진적 투쟁을 기획하자

시대읽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타당한 항로를 찾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Channel 2001'

1. 정세전망

INTRO

하나.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관습의 체계이다.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가부장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라는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든 개별 남성은 지배적 위치에 있고 모든 개별 여성은 종속적 위치에 있다는 일반화된 도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인종주의 등의 다른 모순과 결합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제는 사회 각 구조들의 관계 속에서 작동 원리와 형태가 변화하여 왔다. 때문에 현 시기 변화하는 여성 종속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여성 종속의 지속과 강화라는 상황에 전제되는 명제가 지배-종속이라는 개념을 개별 남성-개별 여성이라는 도식에 흡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성할 수 있는 여성 정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구체적 시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담지하는 해방에 대한 신념 역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현 시기 변화되는 여성 종속의 방식과 작동원리를 명확히 인식하는 속에서 여성의 일상에 침투해있는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는 것을 통해 가부장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와 실천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둘. 수세기를 걸쳐 이루어진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페미니즘적 발전이나 남한 1세대 페미니스트의 부분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관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종속은 지속되어왔다. 현재의 가부장제는 다양한 통제전략을 각 영역에 침투해있는 자본주의에 결합시켜 고안해내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자본 축적은 가부장적 관계 속에서 주변국 여성에 대한 착취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 유연화는 여성의 주변부 편성을 이미 일단락 지은 상황이다.

Channel 2001'

1. 여성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전략의 고안: 보수적 상급론과 성 상품화 메카니즘의 공존
 2. 가부장적 담론과 기체의 재생산 영역 여성에 대한 폭력
 - 2-1. 이숙종심적 담론과 '보여주기 식' 정책하의 반성폭력 운동의 공전
 - 2-2. 상해매 메카니즘의 고착화와 경로의 다변화
 - 2-3. 직장 내 성폭력
 3. 고착화된 여성의 주변화와 초과착취 노동 시장에서의 가부장적 고용 전략
 - 3-1. 세계 체제하에서의 여성
 - 3-1-1. 세계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
 - 3-1-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여성노동력의 주변·비숙련·비정규직화
 - 3-2. 노동 유연화 새로운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
 - 3-2-1. 여성 우선 해고
 - 3-2-2. 여성 중심의 비정규직화
 - 3-2-3. 여성의 이중노동 증가 가부장적 전략
 - 3-2-4. 특수고용직 지본과 가부장제의 최신 고용 전략
 - 3-2-5. 구조적 부재
- § 최근 모성보호 축소·폐지 관련 흐름
(보통) 위험한 성과 여성부로의 확대개편

남한의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성에 대한 이중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가 고안해낸 상품화 경로의 다각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주변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는 고착화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개선은 가시적인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역풍으로 치닫고 있다.

1. 여성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전략의 고안 보수적 담론과 성 상품화 메커니즘의 공존

여성의 종속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성성에 대한 통제이다. 여성의 성, 성활동,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역할로서의 성 등을 정치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해 도출되는 담론 구성과 실천에의 노력은 페미니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전략들이 고안되고 유지되는 중심에 성성 통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성은 성기 중심적인 의미로 국한되어 개념화되기 때문에 쾌락과 동일시되며 유교적 관념 하에서 도덕적 타락으로 귀결되는 본능 혹은 충동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성에 대한 엄숙주의적 관념은 성인의 성과 성인이 아닌 이의 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이는 성인=남성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권력으로서의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화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발화 자체가 금기시되기 때문에 여성은 가부장적 구조하에서 객체로, 남성에 의한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여성의 성이 발현되는 유일한 사회적 허용은 성적 대상화 혹은 상품화의 경로를 통해서만이다.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성의 강요와 대상화된 여성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여성의 성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 통제의 기초로 자리하게 된다. 때문에 여성의 성성을 정치화하는 것은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이중적 성규범의 잣대로 여성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다.

최근 성성에 대한 통제는 인터넷, 비디오 등의 자본의 거대 유통 구조하에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가부장적 관념은 성인 남성의 성욕을 관음증으로 포장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는 남성의 성욕이 사회적 역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 통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은폐하는 것과 동시에 성 상품화의 주요 소비층으로 남성집단을 위치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백지영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이 익명 대중으로서의 남성집단에 의한 개별 여성

의 성성 통제는 관음증과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만을 대립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 메커니즘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여성은 의도적으로 삭제한다. 성성 통제의 변화되는 방식 가운데 가장 최신형태라 할 수 있는 '실제 성생활 엿보기'식의 몰래카메라는 단순히 한 여성 연애인의 스캔들이 아닌, 고착화된 가부장적 관념(이중적 성규범: 순결 이데올로기·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과 자본주의 메커니즘(성 상품화의 유통구조) 하에서 개별 여성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몰래카메라와 관련,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자'만을 처벌토록 돼 있다. 촬영한 증거가 없을 때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제재도, 철거도 할 수 없다. 거기에다 몰카비디오는 촬영, 제작, 판매 등 각 단계가 철저히 분화된 체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유통된다. 때문에 당국이 단속을 나서도 고작 비디오를 파는 가게 정도만이 걸려들 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테이프를 제작한 사람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사건과 담론은 주로 사이버 상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과 보수적 성 담론 하에서 여성의 발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여성 일반을 이중적 성규범으로 다시한번 통제하게 된다. 즉 백지영에서 가해였던 가부장적 시선들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성성 통제는 현재 인터넷 성인 방송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제재 역시 '선정성·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에 대한 이중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성에 대한 엄숙주의에 의한 규제와 단계화된 메커니즘에 의한 성 상품화의 확대가 공존하는 것이 남한 사회 성문화의 현주소 인 것이다.

2. 가부장적 담론과 가계의 재생산 영역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델화'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구성되고 있는 담론과 관련 법, 제도 등의 추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입각, 그에 따른 저항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가부장적 체계 속에서 성별화된 폭력은 일상 영역에서 심화되고 지속되며, 사적 영역으로 편성되므로 개념과 시각이 선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폭력의 연속성)

1)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gender violence)은 사적 혹은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gender)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한다. 흔히 성폭력이라 불리는 개념은 강제적인 성관계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성별에 의한 권력관계가 전제되는 속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강제행위, 언설 모두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고 학습된 계층이며, 따라

이라는 설정 하에서 현재를 읽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1. 이슈중심적 담론과 '보여주기 식' 정책의 반성폭력 운동의 공전

최근 성폭력은 '원조조제', '여성 연예인의 비디오 파문' 등의 개별화된 사건 형식으로 또는 사회적

으로 매우 최소해(7) 충격적인 강간으로 각각이 다른 맥락 속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언론이나 사회적 반응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폭력은 여전히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며 (관념적) 수치상으로도 낮은 폭력일 뿐이지만 주목할 만한 문제가 된다. 또 정부의 정치제도 속에서 여성에 관한 전문 부위가 건설이 되고 법률이 제정되는 현상들, 즉 페미니즘의 제도화는 여성의 성적 인권이 향상(?) 되었음을 과시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권력 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의 이해와 여성의 저항은 계속되어 왔지만, 비정상적 소수 남성에 의한 윤이 나쁜 소수 여성의 피해 관계인 성폭력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접근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 기반과 올바른 담론의 부재는 현재 이 시각에도 지리한 성폭력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약간의 개념적 확장, 성과 관련한 문제의 사회적 관심 증대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다소 허점이 있는 성폭력(성희롱) 관련한 제도 마련을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 없다면, 불행하게도 성폭력과 관련한 정세는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조차 않는다.

현재 대학 사회는 지속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해왔던 기간의 여성운동 단위를 중심으로 성폭력에 있어서 상당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 반성폭력은 학생운동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은 곧 운동진영의 진보의 척도로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성폭력은 성별화된 일상, 즉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이며 여성 통제의 수단이기도 일치적으로 여성들이 그 중심에 존재하게 된다. 또 이러한

폭력적 권력 관계의 또 다른 구성 주체들에 의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되는 등, 피해자나 사건 해결을 위한 몇몇 소수 여성만의 과제가 아닌 대학 사회 전반의 문제로서 반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장되는 것 등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사회 역시 성별화된 사회 권력 구조를 거울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운 진영의 반성폭력 관련한 활동들은 운동 진영의 진보적 성향의 대변이나 도덕성 실추의 시각들 속에서 내규 제정이라는 획일화된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성폭력 운동은 전형화된 일상의 남녀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형태를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과 괴리된 형태로 소수의 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방이나 처벌만이 강조되기도 한다.

2-2. 성매매 메커니즘의 고착화와 경로의 다각화

성매매는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을 실행한다는 지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닌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잘 조직된 사회적 행위이다.

기간 성매매의 대부분은 유흥업소나 알선업체 등의 성산업에 매개로 이루어져왔는데, 업소에 의한 매춘 여성 통제는 인신매매, 강제적 감금, 경제적 착취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때문에 성

2)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매춘, 윤락,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 규정은 성매매의 본질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것으로, 성을 파는 여성만이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윤락 행위등 방지에 관한 법률)'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낙인은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쏠린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성을 사는 남성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단지 '상대방'으로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그에 비해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을 사는 이와 파는 이 모두를 드러낼 수 있으나, '춘'이라는 글자가 최춘, 초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욕'이란 순화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암시하는 용어이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아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가려움을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난 것이다. :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하는가」 중에서

3) 가지는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 음성화된 성매매 등에 유인된 매춘 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확대재벌로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자에게 종속되며 성적 상품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자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 성매매는 남성의 권력 관계 속에 놓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남성 지배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하게 된다. 즉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은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비하를 가능하게 하는 성매매의 존재 자체만으로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의 일상은 '성매매'라는 용어에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을 여성 일반에 보편화시킨다. 이를 통해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열등자 집단으로서 '여성'이 되며,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 영속하는 데 기여한다.

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물리적 강도에 의해 판단될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상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은 사적영역,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내구타, 성적 학대에서부터 국가에 의해 조정, 묵인되는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집단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때문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은 수위나 정도의 차이로 인식되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하나의 연속선 상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별화된 언설이 허용된다면, 이는 어떠한 성폭력도 허용될 수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구성하게 된다.

산업은 여성을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생산업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게 된다. 최근 성매매는 가정집에 여성을 감금,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의 음성적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 정책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 성매매를 금지, 매춘 여성과 상대 남성, 그리고 알선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국가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미군 주둔, 외화획득, 국민 보건, 매춘 여성에 대한 선도보호'의 명목 하에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법의 적용은 매춘 여성에 대한 범죄자로서의 가장 처벌, 사회적 낙인의 가장,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상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부 정책은 성매매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특정지역 존치, 보건중재, 관광 정책 및 선도보호 정책 등으로 매춘여성을 이용, 통제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즉 처벌주의와 불법적 규제주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정책은 순결이 요구되는 가족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성을 통제하면서도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필연적인 것으로 상정, 이를 보호하는 이중규범에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 성매매에 대한 경각 분위기 속에서 성을 판 미성년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과 보호소 감금 등의 형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은 구조화된 성매매 유입 경로에 의한 피해자인 여성을 사회적 단절체층으로 편성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미성년 성매매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성을 사는 남성들의 경우 사회적 시선을 의식, '비밀 보장'이 되는 익명적 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익명 보장과 성매매 업소에 직접 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여성, 나이가 어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요자들은 끊임 없이 상대 여성을 교체할 수 있는 인터넷 성매매를 선호하고 있다. 남성의 익명이 보장된다는 것은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은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성이 사회적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그 안에 있는 여성은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들이 받는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몰아 경제적인 빈곤에 처하게 된 여성들의 경우, 생존전략으로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이다. 게다가 성매매의 경험을 한 여성들의 경우, 여성에게 가해지는 순결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배제되는 악

순환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최근 '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미성년 여성을 구속한 사례가 있었다. 성인 남성의 구속 처벌만으로는 만연하는 원조교제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미성년 여성에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용시켜 구속 조치한 것이다.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매춘 여성과 여성 일반이며, 이득을 보는 것은 명확히 남성과 자본이다. 따라서 매춘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과 선도보호가 아닌 탈매춘을 위한 사회 구조책을 마련, 적용하는 것이 성매매의 억압 고리를 끊는 출발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성매매 매커니즘에 유입되는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정책 역시 미성년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념과 구조를 인식하는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원조교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 자체가 미성년 여성의 '자발적 선택'에 혐의를 두고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 속에서 성매매의 작동원리를 드러내는 담론 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다. 언론은 마치 '원조교제'가 현 성매매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돈이 필요한 미성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구조에 의해 미성년 여성의 성이 쉽게 상품화되는 것과 매춘 여성 전반의 인권 착취 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매춘 여성이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과 '원조교제'가 미성년 여성을 착취의 구조에 유입되는 전 단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담론 구성과 사회적 차원의 구조책 마련이 요구된다.

3 고착화된 여성의 주변화와 초과착취 노동 시장에서의 가부장적 고용 전략

3-1. 세계 체제하에서의 여성

제3세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만병통치약'으로 처방되었던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은 경제안정화나 성장에 대한 어떤 가시적 성과도 없이 제3세계 민중에게 예외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만을 전가시켜 왔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의 파괴적 효과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제3세계 민중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격심한 생활수준의 저하에 직면하여 다양한 생존전략을 고안해내고 있다. 특히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국가에서 가계로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계로 가해지는 압력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으로 급속히 전환시켰으며 규제금융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제

생산노동, 여성중심의 노동유연화 등은 신자유주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 요건이며,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성별분업, 가족임금 등)를 통해 강화, 은폐되고 있다.

3-1-1. 세계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

70년대 이래 전세계적 자본 축적의 과정은 물질적 확장에서 금융적 확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금융에서의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와 기술혁신이 융합되어 이른바 '금융혁명'을 완수하기에 이른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사실상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에 다름 아니며, 80년대 이래 거의 모든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에서 추진된 금융적 탈규제는 자본의 국제적 거래의 장벽과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금융구조의 초민족화를 야기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주변부에 위치한 제3세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본을 통제할 수 없게끔 하였으며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을 증가를 초래했다.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속에서 중심국의 자본 관리, 노동력 관리 등의 권력은 주변국들에 침투의 강화를 거쳐 '배제'로 귀결되었으며, 초국적 자본의 형태를 띤 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 중심국의 자본 통제가 가능해 지면서 초국적 기업은 전 세계 노동자, 농민에 대한 초과 착취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 내의 새로운 계급 분화 국면을 야기한다. 제3세계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자국의 자본 통제에 의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주변국 자본가들은 국내 자본과 노동력을 해외로 빼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탈규제는 주변국 자본가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대부분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노동자에게는 전혀 없는 지위약화를 자본가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게 된 것이다.

3-1-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여성노동력의 주변·비숙련·비정규직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소득 및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생계비 저하의 가속화, 정부보조금 폐지, 사회적 서비스 삭감 등을 통해 제3세계 민중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특히 고통을 받은 이들은 여성이었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시장의 탈규제와 의료 및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의 지출 감소에 의해 여성의 지위는 급속

도로 약화된다.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고용주들은 대부분이 미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여성에게 일차적인 해고를 감행한다. 해고된 여성들은 임시직, 가내하청노동 등의 비공식 부문에 참가하게 되고, 임금 동결이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위협받게 되는 공식부문의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비공식부문에서 노동하게 되는 것이다. 현 경제개념에 의해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 지출의 대폭적인 감소는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정부차원의 의료지출 감소는 어머니, 아내의 보살핌 노동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 폭력, 가사노동과 유급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여성들의 스트레스 역시 증가한다.

3-2. 노동 유연화: 새로운 형태의 자본 구조 개편·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

8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던 의류업을 비롯한 전 산업영역에 걸쳐·비정규직으로의 재편이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그리고 가내하청 노동의 고용형태가 자본의 이윤 전략에 있어 유효한 방식으로 자리잡은 현재로 이어진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산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기업전략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목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고용모델 파괴와 비공식적 고용관계의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노동력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유연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데, 기업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숙련, 핵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과정상의 유연화가, 기업 외부 노동 시장에서는 주변 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자본은 노동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변 업무를 기업 외부 노동시장에서 실행하게 되고 여기에 비숙련 노동자들을 집중 고용한다. 이는 하청, 시간제 일, 초과 근무, 임시 계약, 그리고 노동 인구를 임시 노동자로 만드는 다른 과정들을 포함한다.

노동 유연화 전략은 노동 착취를 통한 자본의 이윤추구 이외에 또 한가지 기업과 남성에게 이

4) 정규직, 전문직 등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조건이 보장되는 부문들과 달리 노동시장 주변부 혹은 공식적 노동시장 주변부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가내노동 등을 비공식 부문이라 한다.

5) 최근 논쟁들은 '유연화'가 자본 구조 개편의 가장 최근 형태라고 제시하고 있다. 유연화의 핵심적 특징은 '핵심적' 노동 인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이, 주변적 노동자에서는 수직적 유연성이 발전하는 데 있다. 기능적 유연성이란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서, 회사의 매일매일의 요구에 따라 쉽게 여러 작업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 유연성이란 특별한, 회사에 특장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들은 회사의 매일매일의 요구에 따라 노동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방식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로운 효과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이 그것이다. 즉 남성은 고위 임원직,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은 봉사, 조력활동, 하급 육체 노동, 생산직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뿌리깊은 평가절하 작업 속에서 여성=비숙련=저임금이라는 도식이 노동 유연화 전략에 있어 전제로 고착화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통해 낮은 보수와 낮은 지위 하에 여성노동자들을 분리편성하고 어떤 분야 혹은 모든 고용 분야에 여성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배제의 형태를 띤다. 여성들은 숙련노동, 정규직에서의 배제와 비공식 부분에서의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으로서의 착취라는 두가지 동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여성들은 고용의 가부장적 전략을 전제로 한 현 노동 유연화 속에서 배제와 성별 분리의 착취구조에 대한 어떤 식의 사회구조적 적용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여성들을 대거 주변부 노동력으로 편성하는 것을 일단의 지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자본과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통해 남성 노동자, 남편, 자본가 등의 구체적으로 이익을 보는 소수 집단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전략들로 오래된 '공모'를 유지시켜 왔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인력을 요구한다'라는 기업과 정부의 강변은 현재의 여성 노동의 주변화라는 상황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들을 분리, 배제하는 고용 전략에 전제가 되는 이데올로기와 구체적 상황들을 제시하여 확장된 권리로써 여성노동권 투쟁이 가능한 몇 가지 전제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3-2-1. 여성 우선 해고

자본주의 산업화 이래 여성은 경제위기 때마다 충격 흡수층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가족의 생계 책임자는 남성 가장이며, 가장의 임금은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어야 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남한에서의 경제위기와 여성 실업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이미 서구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주는 여성을 해고하거나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남편들은 부인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되므로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용주와 남편들은 모두 이득을 본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 임금제는 남한에서 실행된 적이 한번도 없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남성 가장 1인의 노동에 대해 가족 전체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지급된 적이 없음에도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여성우선 해고에 있어서 기업, 정부, 가부장적 노동조합에 의해 합의된 여성 배제 전략으로 고착화되었다.

남한의 인원 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정리인원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조직의 가장 힘없는 계층이 일차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 특히, 여성들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여성들이 그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및 금융업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인력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힘없고 주변화된 계층을 중심으로 인원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여성 우선 해고는 노동조합의 저항이 약할 경우 거의 기업 측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존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명예퇴직'을 택하는 사례가 98년 농협 사내부 부 우선 해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기존 여성의 경우 "언젠가는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때 나가겠다"는 심정으로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개 명예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리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며, 대기 발령 등 강력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의 위협을 통해 여성들을 우선 해고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별화된 구조조정은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는데, 한국통신에서 부부사원 표적퇴직, 인력풀제 운영, 계약직 해고 등의 인력감축을 중심으로하는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희망퇴직'이라는 허울로 부부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대기발령 시킨다는 식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부부사원 남편에게 대기발령이 났으니 희망지가 어디냐며 강제적으로 대기발령 희망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남편의 노동권을 불모로 어쩔 수 없이 여성 노동자들이 퇴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것이다.

3-2-2. 여성 중심의 비정규직화

6) 농협의 구조조정에서 상대적 생활안정지라는 명목하에 사내부부사원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은 성차별적 부당해고 혐의가 있음은 노동부가 인정하였고, 여성특위도 사내부부를 인력감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97년도 경제위기 이후 여성 우선 해고는 이미 노동 유연화 전략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농협 부부 사원 우선 해고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소송은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여성 부서 인력의 집단 해고와 여성 직종의 폐지, 희망 퇴직 권유 등의 일련의 상황들은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해고 이후 여성 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비정규직화 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성 직종, 여성 부서의 폐지, 또는 여성 위주의 인원 감축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이후 필요한 여성인력을 파견,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부당 정리해고가 여성의 비정규직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파견업의 합법화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부당 정리해고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중심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가부장적 노동조합, 정부, 그리고 사용자 삼자 간의 묵인 아래 이루어져 왔고, 전술했듯이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배제는 이미 안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주변화된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생계를 위협하는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된다. 다음 사례는 70%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3-2-3. 여성의 이중노동 증가: 가내하청 전략

노동 유연화 전략은 경제안정화나 성장에 대한 어떤 가시적 성과도 없이 여성에게 예외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만을 전가시켜 왔다. 이는 유연화의 파급적 효과로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여성들은 격심한 생활수준의 저하에 직면하여 다양한 생존전략을 고안해내고 있다. 특히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국가에서 가계로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계로 가해지는 압력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으로 급속히 전환시켰으며 구제금융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다.

남한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내 하청은 국내외적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내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을 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과 가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가내 작업을 감수하게 된다. 가내 하청 노동력의 대부분은 가사일과 유급 노동을 함께 하게 되는데, 열

악한 작업 환경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여성의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증가하고 있는 임금제불은 여성들의 빈곤화, 나아가 가족 생계 자체의 빈곤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3-2-4. 특수고용직: 자본과 가부장제의 최신 고용 전략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력 약화,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하는 노동 유연화 정책의 표적층에 대거 여성들이 편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에 종사하는 100만 노동자들은 그 동안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일해도 퇴직금 한푼 없고, 실적을 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며, 일하다 다쳐도 개인의 부주의요, 과로로 유산을 하여도 개인이 병원비를 대는 등 산재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항의하면 다음날로 해고되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근로조건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에 따라 이런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성 CC 200여명의 특수고용직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경기보조원)들은 현재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상식적으로 골프장이 캐디가 없이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성 CC는 '노캐디'를 선언하며 모든 경기보조원들을 거리로 내몰았는데, 이것은 노조를 무산, 분열, 와해시키려는 임시적인 수단이며 조합원에 대한 협박에 불과한 것이다. 더군다나 사측은 일방적인 해고와 더불어 모든 캐디를 용역화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조설립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골프장이 캐디와의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8월 24일 강병준 사장과 노우정 위원장이 함께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한성이 무노조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 한성 CC 경기보조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노동부는 판결을 미루며 지방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 판결에 따라 노동부도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일관하기도 하였다.

3-2-5. 구조적 부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본노동통계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그 규모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태조사와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

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회피를 위해 고용형태를 다변화시켜왔고, 이로 인해 기준에는 고용(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 신분에서, 이제는 위탁계약자,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변하여 노동하게 된다.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 이후,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기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전략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은폐시키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확보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서 제출, 대정부, 국회 정책요구 활동,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특수고용노동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어떠한 교섭도 할 수 없다며 단채교섭을 회피, 지연하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조합법상의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십일 간의 파업을 통해서만 겨우 신고필증을 내어주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삼권이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들어서도 노동부와 정권은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준하는자'로 분류하여 채불임금, 해고, 산재 등 일부조항만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심지어 경총은 "개별사업주가 무슨 근로자냐"면서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자는 정부안 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실상의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해 널리 퍼져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구조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연대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이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이 부당

한 문제로 호소하는 기관인 노동부, 여성부, 노동위원회에 여성전담 근로감독관, 여성전담 심사관을 두고 엄격한 자격심사,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필수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격 없는 담당자의 징계문제, 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의 재심받을 권리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론) 위험한 성과 여성부로의 확대개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계의 활동은 '남녀평등'을 전제로 한 법, 제도 측면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여성 특위가 신설된 이래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법, 제도는 개념 자체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한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활동 역시 보여지는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차원의 거시적 성과들을 얻어내는 데 급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이 정부기관에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특위의 여성부 개편을 여성계의 성과인양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로의 확대, 개편에 있어서도 기간 여성특위의 실내용과 실질적 적용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비판 보다는 여성부 고위직 인사에 집중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여성부 승격이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승격 자체의 성과에만 만족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이 우려된다.

II. 정치적 목표 및 과제

2.1. 현 시기 변화하는 가부장제 통제전략을 맥락화, 그에 따른 저항을 기획한다

▶인터넷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성의 성성 통제의 작동원리의 담론화가 요구된다. 인터넷 성인 방송에 대한 규제 흐름이 담지하는 가부장적 성담론: 통신질서확립법 등 보수적 성통제 :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과 성상동화를 조정, 확산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지속적 폭로가 필요하다.

▶성폭력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여학우들 자신의 확장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담론 확장이 요구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세적 대응이 모호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인 쟁점화가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 학칙 제정 흐름이 학교 당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은 여성부 승격과 함께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하기에 기간 학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와 각 대학의 성문화 지형 속에서 반성폭력 담론 구성의 과정 중 학칙제정이 실물화될 수 있는 시점과 학교 당국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 산업형 성매매와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매커니즘의 가부장적 신념체제의 맥락 하에서 매춘 여성의 현실을 폭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에서 매춘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 그에 따른 사회구조적 마련에 대한 요구와 성매매의 개념 자체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에서 시작한 담론 형성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합법화나 '원조조계' 등을 쟁점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취업을 고민하는 여학우들에게 고용에서의 성별분리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성 상에서 가부장적 고용전략을 담론화하는 데 유용한 기제이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자체를 성별화된 문화와 폭력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부터 실제 사례들을 폭로하면서 이에 대한 법,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 요구된다.

▶ASEM 이후 세계적 규모의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논의들이 도출하는 결과에 주목, 여성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착취와 성적 착취,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폭로한다.

▶노동법 개혁 흐름에 대한 투쟁 속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시에 모성보호의 정치적 함의 측면을 부각, 전반적인 고용에서의 성별 배제 맥락에서 모성보호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 요구된다.

2.2. 제도화된 페미니즘, 관변화된 사회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적 개입 속에서 급진적 반체제 여성운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현재 제도화된 페미니즘은 가시적 성과에만 착목하는 관변화된 여성계 흐름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 정보 유통 경로 확보와 사회적, 담론적 영향력 담보라는 측면에서 관변화된 여성단체와 형식적 연대를 피할 것이 아니라, 반체제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견인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여성단체에 대해 명확히 전선을 긋고, 제도화된 페미니즘이 간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인권문제, 여성노동권 문제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와의 연대가능성을 타진한다.

2.3. 학여운 진영의 파편화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주체화 경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 충돌'을 기획한다.

▶파편화, 개별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학여운 진영과의 적극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존재하는 연대의 틀거리는 성폭력 사안에 매몰되어 있고, 하기에 여성운동 단위들의 차이를 발전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성노동권을 기반으로한 연대가 있겠다. 현 학여운의 동향에 주목, 학여운의 실내용이 어떤 맥락을 가지는가를 인식하는 속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충돌을 기획해야 할 때이다.

▶여성노동권이라는 실 내용을 기반으로한 연대를 통해, 기간 시간중심 연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실 내용의 연대를 구축한다. 현재까지의 단위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의 연대가 형식적 연대 틀거리를 성과로 남긴 바, 차이에 대한 논의를 조직화하고 이를 외화하는 것을 통해 연대를 모색한다.

2.4. 통합적 행동의제 발굴을 통한 비국가 연대운동을 실물화한다.

단독비행

고용에서의 기부장적 전략강화/ 성별화된 폭력에 맞선 급진적 투쟁을 기획하자

사대원기

2001년을 관통하는 전략적 행동의제



2001' 행동의제

1.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자치규약 제정을 2001년 대학사회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 속에서 배치,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구성

▶ 일상적인 성문화 진단과 사례 드러내기, 작은 단계에서의 과정 구성, 학교당국의 학칙제정 주도에 대한 실질적 대응

2.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조 설립 운동을 통한 비정규직 투쟁 속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에 비판적 이데올로기 구성과 실천 조직

▶ 여대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3. 성매매 매커니즘의 고착화 상황에 대한 대안적 이데올로기 구성, 매춘 여성과 다각화된 경로 속에서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 유입 현실 폭로와 실천 구성

▶ 매춘 여성의 비범죄화에 대한 공론화 운동을 통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및 실물화, 가치론 현장활동, '원조교제'에 대한 비판적 이데올로기 구성

단독비행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문화, 폭력의 재생산

직장내 성폭력

일상에 존재하는 성별화된 문화와 폭력은 여성들의 경험을 발화할 수 있는 '용기'에 의해서만이 깨질 것이다.



Do it now!

성별화된 문화와 폭력의 재생산: 직장 내 성폭력

성별화된 전략들에 따른 고용에서의 효과는 다양한 기부장적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다. 기부장적 성적 관습은 성별 고용 유형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내 성폭력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여성 노동자를 통제하도록 작용하며, 동시에 여성을 어떤 유형의 일에서 배제시키도록 작용한다. 배제적 효과는 과거에는 모두 남성 뿐이었던 직업 분야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장내 성폭력이 사용되는 형태로 드러나왔다. 그러나 직장내 성폭력이 전통적인 남성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에만 국한되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 직장내 성폭력은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확대될 수 있는 행동의 연속선 상에 있다. 일상화된 언어, 행동에서의 여성비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부터 물리적 폭력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이 더 이상 정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합창단에 있는 지휘자가 여성단원들을 직장내 성폭력 했다. 개인면담을 요구하고 방문을 잠근후 몸을 쓰들고 단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에 갖다 대기도 했다. 전화를 하여 "나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늦은 시간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매우 불쾌했지만 나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에 불쾌감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노래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단원을 손을 잡으며 에너지가 생긴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몸을 밀착시켜 춤을 추기도 한다. 호흡을 보겠다고 옷을 벗어보라고 한 적도 있었다. 벗지는 않았지만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가 내 손을 감싸 잡고 얼굴을 손으로 만졌다. 이제는 지휘자가 근처에만 나타나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소, 돼지 같다'는 말을 듣고 도 짹소리 하지 않고 방실헬싹 웃어야 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성적 모욕을 주는 상사가 밥을 먹자고 하면 꺾혀서 찢리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상사가 '한번 하자, 한번 주자'라고 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농담처럼 웃어넘겨야 만 합니다.

-한성C.C 왜 노조가 필요한가 중-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직장내 성폭력은 고용에서 여성의 지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 동시에 가해자 남성이 쥐고 있는 '인사권'은 여성에 대한 보다 쉬운 폭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신고 등의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과 공포 상태가 되어야 이루어지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은 고착화된 여성의 불안정 고용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성 C.C의 경우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파괴하는지를 드러내준다. "한번 하자" "한번 주라", 한성C.C의 김종부 프로는 한성C.C 경기보조원들에게 일상적인 성폭력을 자행해왔다. 이밖에도 김종부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술자리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김종부를 비롯한 몇몇 간부가 함께 한 이러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바로 "너 그만 두고 싶냐, 너 오늘 일하지 말아라"와 같은 협박으로 시달려야 했으며 실제 이런 협박 끝에 회사를 그만 둔 사례도 허다하다. 술자리에 대한 압력으로 하우스에 일찍 올라가게 된 경우에도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결혼한 경기보조원들에게는 "니 남편이 잘 해주냐?" "일주일에 몇 번하냐?" "나는 마누라랑 밤새했더니 피곤하다" "내가 이래봐도 물건은 좋다"라는 등의 인간 이하의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면 뒤에 대고 하는말이 "냄비뚜껑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저런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돼..", "야야, 저 걸음걸이 봐라, 컷팅이가 무거워 걷기나 하겠냐"하며 여성이면 경기보조원이든 손님이든 성적인 욕설과 무시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재우 과장(前 마스터)는 백 배치시나 점호 시간에 경기보조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소·돼지같다, 면도칼로 그어 버린다, 니들이 인간이냐?'와 같은 비인간적 언사들을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다.

또한, 김종부는 17년동안 상습적으로 경기보조원들을 직장내 성폭력과 성추행을 해왔다. 1년에 한번씩 있는 조장선출과 그에 따른 회식 또는 각 조 회식 자리에서 김종부는 간부들에게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술따르기를 강요했다. "NO"라고 하면 그 말을 무시한채 반복적으로 술따르기를 강요 하는데 거절한다면 그 경기보조원은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해야 한다.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그 경기보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일을 내보내지 않아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도 있다.

무조건 김종부의 말을 들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NO라는 말은 있을 수 없으며 OK라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소 돼지 같다'는 말을 듣고도 목소리 하지 않고 방심방심 웃어야 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성적 모욕을 주는 상사가 밥을 먹자고 하면 딱히서 팔리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한성 C.C 경기보조원은 상사가 '한번 하자, 한번 주자'라고 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농담처럼 웃어넘겨야 만 합니다

·한성C.C 왜 노조가 필요한가 중

특히, 낮은 연령의, 미숙한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 직장내 성폭력은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취직 후 업무는 3년간의 고등학교 교육과 23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하잘 것 없는 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로 여겨 직장내 성폭력, 저임금등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에 있고 따라서 직장내의 위계질서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저항, 거부, 문제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1년 먼저 들어온 남자주임이 모든 여직원들에게 무조건 반말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여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이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남자주임은 외부에 알리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남자직원이 나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평소에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함부로 퍼부었으며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싸았어요? 밤에 무슨 짓을 했기에..."라는 등의 직장내 성폭력을 일삼는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조치 없이 가해자의 형식적인 사과로 끝났다.

남녀차별 금지법과 고용 평등법 개정의 흐름 속에서 남녀평등이라는 전제하에 직장내 성폭력은 어느정도 이슈화 되어왔고, 인식지만 역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적용을 받기 힘든 일상의 범위 안에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폐되기 쉬운 뿐 아니라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에게 혐의를 부여하는 남성중심적 성담론으로 인해 신고 자체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비하, 차별적 언설들이 가능한 성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은 사건 자체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했는가 여부에 따라 피해 경향이 판단된다는 것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작동원리인 가부장적 구조를 도덕적 문제로 소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은 업무 시간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지위를 악용, 퇴근 후 근무장소 이외 즉 회식자리나 남성 상사에 의해 강요된 사적 술자리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러한 '회식자리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고용 평등법에 의해 '업무와 연결되는 자리에서의 직장내 성폭력은 직장내 성폭력에 해당된다'라며



직장내 성폭력으로 판결 받은 사례가 몇 건 있으나, 기준이 '업무와의 연결'이라는 것이 한계적이다.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의 일상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이해에 기반해 고용에서의 여성 배제라는 측면에서 업무와의 연결성을 파악해야 한다.

[직장내 성폭력 불성립 사례] 지난해 4월 모 회사 총무과장 A씨는 퇴근시간에 회사내 주차장 부근에서 우연히 직원 B씨를 만나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A씨는 "승용차 트렁크에 포르노 비디오테이프가 있고 비디오방을 여관처럼 개조, 침대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으니 같이 보자"는 등의 언어적 직장내 성폭력을 했다. ▲결과 승용차 동승은 직장 내 지위 및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이며 언어적 폭행도 경미, 직장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직장내 성폭력 불성립 사례] 지난해 8월 모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A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주임, 인사 좀 하지"라며 신문지로 B씨의 엉덩이를 세번 때리며 "결혼을 했으면서 직장예절도 모른다"고 나무랐다. B씨는 모멸감을 이유로 직장내 성폭력 사건으로 주장했다. ▲결과 직장내 성폭력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함께 사회통념상 '합리적·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직장내 성폭력 성립사례] 모 병원 회식자리, 피해자 A씨는 총무과장 B씨로부터 원장과 진료부장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팔을 잡고 원장과 진료부장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강제로 술 따르기를 시켰다. ▲결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직장내 성폭력으로 판정 받았다.

사례와 같이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신고된 사건 자체에서 이루어진 가해자의 '행위', 그리고 '업무와의 연결'이기 때문에 신고 이후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 개념 자체가 구체적인 상황과 시점에서 발생한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따라서 성별화된 일상의 연속선 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성별화된 폭력의 개념으로서 직장내 성폭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 구조에 침투해 있는 가부장적 성별 관계: 성성에 대한 통제 이데올로기가 고용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인식하는 속에서 고용이라는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발동하는지에 대한 폭로가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구조적 실질적 적용을 위한 경로마련이 시급하다

성별화된 문화와 폭력이라는 설정 하에서 직장내 성폭력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 이데올로기 자체의 변화가 강력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단, 직장내 성폭력이라는 사안 자체에 걸려드는 법, 제도의 개선이 문화 자체가 여성적 시각을 담지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일 사안으로서의 직장내 성폭력을 인식, 이에 대한 법, 제도가 유일한 구조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미조직화되어 있고, 따라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신고 위주의 대응이 일차적으로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경로마련이 시급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 구성요건」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할 것”

“지위를 이용한 경우일 것”

전술했듯이 직장 내 성폭력은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행위 자체를 중점에 두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대 해석하는 것, 가해자 성립 조건에 거래처 직원과 고객 등 여성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맺게되는 관계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사건 전후의 과정에서 성차별까지 포괄하여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는 조항은 상사에 의한 성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부하직원이나 동료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피해 여성의 문제제기를 은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항들이 첨가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을 피해자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남녀차별과 직장내 성폭력 사건 담당관들의 엄격한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노동부, 여성부, 노동위원회에 여성전담 근로감독관, 여성전담 심사관을 두고 엄격한 자격심사,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필수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자격없는 담당자의 징계문제, 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의 재심받을 권리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남녀차별과 직장내 성폭력 사건 담당관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직장내 성폭력사건일 경우에는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지식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영향과 피해자 상태를 고려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관들의 여성관이 더욱더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남녀차별과 직장내 성폭력 사건 담당관들의 엄격한 자격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조사과정의 공개다. 한 신청인은 회사 쪽 답변서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문제로 호소하는 기관인 노동부, 여성특별위원회, 노동위원회에 여성전담 근로감독관, 여성전담 심사관을 두고 엄격한 자격심사,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필수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자격없는 담당자의 징계문제, 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의 재심받을 권리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Do it now!

남녀차별 금지법 이후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피해 여성의 신고 건수는 증가했으나, 기간 대부분의 사건이 접수 이후 해결 과정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부는 직장내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목표 중 하나로 채택, 이와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남녀차별 금지법이 강제력을 갖게 되면서, 직장 내 직장내 성폭력 신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속속 제출되고 있는 직장내 직장내 성폭력 판례들은 법 자체의 한계와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적용부재를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부는 여성부 신설 이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증하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여성부의 대응 역시 여특위의 한계지점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기관의 승격 자체가 성과로 주목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성과로 가시할 것인가에 급급해서 여특위의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 이후 신고 건수 증가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오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 적용을 위한 경로마련과 직장내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롯데호텔이 지난 31일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가 작성한 인사과과를 토대로 직장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를 체계적으로 탈락시킨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기에 최근 사례, 판례들에 대한 폭로 등의 직접행동이 요구된다.



단독비행

고용에서의 기부장적 전략 강화의 신호탄

모성보호 축소/폐지

우리의 임무는 고통의 분노를 결의하는 분노로 바꾸는 것이다.



Do it now!

특수고용직들은 늘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마음대로 그만둘 자유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J학습지 수원지국의 이모(35세)는 지난해 7월 결혼 7년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를 사산했다. 임신과 함께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측이 퇴직예정교사들이 밀려 있다며 학습지 관리를 계속 떠맡겨 두달 이상 근무를 더 했기 때문이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하루 20여집을 숨기쁘게 돌아다니다 결국 하혈을 했고 사직서 제출로부터 한달 이내에 수리하도록 돼 있는 회사규약은 종이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이씨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직장을 떠났다. 6년간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나 보험처리 하나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 개정에도 반대한다.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 (경제5단체 회장단)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를 근로기준법에 명시, 실행하라

여성에 대한 성별화된 폭력을 담지한 고용에서의 기부장적 전략은 여성우선제고, 신규여성실업의 과정을 거쳐 여성노동력을 대거 비정규노동으로 편성하는 것을 완결짓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통제전략을 고안해내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주변화, 빈곤화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자본의 위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돌파하려는 자본과 정권은 남한사회 뿌리깊은 성별분리관념을 이용, 노동시장에 대한 분리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자를 일차적 타겟으로 설정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모성보호 축소/ 폐지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모성보호 확대 개정안을 입법하라!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 적용을 보장하라!

출산휴가 70일 확대하라!

태아검진휴가제 도입하라!

간접차별관련 상해 규정을 명시하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30%임금지급 보장하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라!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입법화하라

소식지

Frying Solo 단독비행

경제위기 때마다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성보호 논의 역시 법,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통제전략의 본격화를 예고해주는 신호탄이라 판단된다. 모성보호 비용을 여성 개인에게 전담하는 것은 주변화된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동시에 여성중심의 비정규직화를 지속 가능케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실현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여성노동권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는 한번도 시행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년간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선심정책에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왔고 경제위기 때마다, 노동법 개악과 함께 일차적 쟁점으로 도마위에 올라왔다.

정부여당은 올해 7월부터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비용의 사회보험 분담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법 개악 관련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를 거치고도 안전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표류중이어서 사실상의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입법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부로의 확대, 개편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도모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은 총선공약이었던 모성보호 확대 입법화를 스스로 무화시키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여성계를 체제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노동유연화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착취 전략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착취라는 실내용과 남녀평등이라는 허울을 동시에 지닌 김대중 정권의 본모습은 현재 모성보호 축소, 폐지를 시작으로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려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전면 철회하고 경제 상황과 재정문제, 여성 고용의 활성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 개정에도 반대한다.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라는 경제계와 모성보호 확대 입법화 의지가 전무한 여야의 합의 하에 모성보호 확대는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명백히 가부장적 자본의 논리 그 자체인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오히려 경제위기 속에서 강력하게 담보되어야 할 여성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강력히 전제하면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성보호 조항이 축소된다는 것은 여성고용 전반의 조건 악화를 가속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기에 자

본의 비용 감축에 일차적 전제조건이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의 맥락 속에서 모성보호가 인식되어야 한다. 모성보호 축소·폐지 논의는 실제적인 적용 고용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관련되는 정치적 쟁점인 것이다. 모성보호 확대 입법화는 단순히 법, 제도 상의 단일사안이 아닌, 노동 유연화 가속화와 고용에서의 가부장적 전략 강화에 맞선 정치적 쟁점이다.

출산력 재생산과 경제위기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사회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성계의 주장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 이후 모성비용을 여성 개인이 떠맡게 되면서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초과착취가 본격적으로 가시되고 있다는 증거로 파악해야지, 출산력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기업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근거제출 또한 여성노동권을 아우를 수 있는 투쟁 속에서 모성보호 확대 입법화가 배치된 것은 아님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여성계는 정권 재창출 음모를 담지한 의도된 선심 '여성부 신설'을 환영하느라 반여성적 김대중 정권으로 편입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며 성별화된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선 급진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모성보호는 출산, 육아 등을 전담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동의 가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거 비정규직으로 유입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소한의 근기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성보호법의 적용은 실효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성보호 축소, 폐지 논의 자체가 여성노동자들을 광범위한 모성파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단독비행

전 세계 여성들의 이름다운 연대를 기억하라

38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차이가 힘이 되는 연대의 공간, 급진적 투쟁의 공간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The Season of Fighting!

1908년 3월 8일 공항에 의한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미국의 뉴욕의 룩저스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여기에 모인 15,0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아동 노동의 금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들이 채택한 슬로건은 '빵과 장미'였다. 이어서 1909년 미국 전지역 2만여 여성노동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10년 독일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은 이 날을 세계여성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90년간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당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조차도 없는 완전한 무권리 상태였다.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기업주의 착취와 억압을 저지할 길이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성별, 종교, 민족의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선거권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여성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선차적인 과제였다.

저임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도한 작업량 및 위험한 작업환경 등 가혹한 노동착취를 중단할 것과 여성과 임신에 유해한 작업금지, 산전산후 8주간의 출산휴가 등 모성에 대한 보호조치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바로 이러한 힘이 세계여성의 날을 탄생시킨 것이다. 1910년 전세계적으로 성장한 여성노동자들은 미국섬유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된 38 시위를 매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매년 38일이 되면 세계 각국의 수천 수 만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집회와 기념식을 갖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리를 행진하며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실천을 결의하는 날'로 기념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당과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과 수태를 조절할 권리가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38대회에서 역설한 한 여성노동운동가의 말대로 3.8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기억하고, 당신과 나의 투쟁을 더하는 노력일 것이다.

3·8세계여성의 날 창시자 클라라 젯트킨

세계 3.8 여성의 날을 창시한 클라라 젯트킨은 1857년 7월 5일 독일 작센 비더라우에서 클라라 아이스너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1878년 우수한 성적으로 라이프치히 사범대학을 졸업한 클라라는 연인이었던 러시아 혁명가 오싹 젯트킨과 함께 사민당 건설에 참여하였다. 오싹 젯트킨과 결혼한 클라라는 그의 성을 받아들여 클라라 젯트킨으로 개명을 한 후 그의 남편과 함께 그 당시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떠났다.

파리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클라라는 특히 여성의 권리를 위해, 즉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그리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계급혁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1891년 독일로 돌아온 클라라는 그 이듬해인 1892년 사회주의 여성잡지인 "평등"을 창립하고 여성문제에 둔감했던 그 당시 사회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1907년 세계 여성사회주의자들이 독일에 모였고 이것이 제1차 세계여성대회이다. 이 회의에서 클라라는 초기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3년 뒤인 1910년 제 2차 여성대회가 코펜하겐에서 열렸으며 그때 그녀는 세계여성의 날을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녀의 건의는 대회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되고 대회가 열린 3월 8일 최초의 3·8세계여성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3.8 여성의 날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각국에서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여성해방이론의 기초를 세워

정치가이자 여성혁명가였던 클라라는 여성해방 이론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1889년 출판된 그녀의 책 "현대 여성노동문제와 여성문제"는 여성해방이론의 기초를 다지는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여성문제를 계급문제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녀의 이론에 의하면, 여성이라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거나 비슷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투쟁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녀는 여성운동도 계급운동의 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녀는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보았으며 그의 남은 여생을 프롤레타리아 여성해방운동을 위해 일했다. 그녀가 중상류층의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들과 연대하기를 거부했던 것이 현대 사람들에게 너무 외관수직이지 않았느냐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계급운동의 한 맥락에서 이해했던 그녀의 철학을 이해한다면 그녀가 프롤레타리아 여성운동과 중상류층의 여성운동을 구분했던 것이 중상류층의 여성운동에 대한 배타가 아닌 보다 효과적인 여성해방운동을 위한 하나의 전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전운동가 클라라 젯트킨

여성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였던 클라라는 또한 반전운동가이기도 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과 1915년에 그녀는 제3차 여성대회를 열어 여성들이 세계평화에 앞장 서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요구하는 전단을 만들어 독일 전역에 뿌린다. 이로 인해 그녀는 4개월간의 구속생활을 하게 된다.

1920년 러시아로 이주한 그녀는 남은 여생을 세계 평화와 여성의 권리 그리고 노동해방을 위해 일하다가 76세의 나이로 모스크바에서 숨을 거둔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여성해방, 노동해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지는 그녀가 심장병으로 몸이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을 돌며 한해에 300회 이상의 연설을 하러 다녔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클라라 젯트킨, 그녀의 76년간의 삶은 곧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이다. 그녀의 열정적인 삶의 한 열매인 3.8 세계 여성대회를 올해는 더 신명나게, 그리고 봄바람이 겨울의 칼바람을 몰아내듯 힘차게 맞도록 하자

38 세계 여성의 날 차이가 합이되는 연대를 위하여

기간 38 흐름은 사회여성단체들의 밀폐된 기획과 행사에 여운단위들의 개별적 참가 정도가 전부였다. 하기에 38의 본래적 의미에 입각한 조직화된 흐름을 집중적으로 기획해야 하는 시기로서 38을 기획해야 한다.

특히, 여성운동 진영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주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실천을 가져나갈 수 있는 38을 구성하자. 여성 종속의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정체성으로 여성들을 호명하고 여성들간의 차이를 긍정하는 여성연대르 통해 여성의 과제를 추출하고 실천의 의지를 확인하는 공간을 기획해보자.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라!

장애 여성인권 확보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반대! 의무고용 시 여성 고용 확대

레즈비언 여성인권 확보

노동유연화 반대! 여성의 비정규직화 반대!

모성보호 축소/ 폐지 반대!

직장 내 성폭력 반대

매춘 여성 인권 확보! 성매매 특별법 제정의 실효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이주여성노동자 인권 확보!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 철폐를 선/언/한/다



단독비행

단독범죄구역ICA?

군대내성폭력

我作我作 아직아작은 현재 정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글로 구성합니다



我作我作

단독범죄구역 - ICA?

새로운(?) 공간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이번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공중파를 비롯한 매스컴에서의 지대한 관심을 얻으며, 그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 안에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군대내에서 상관에 의해 저질러진 이번 성폭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벼운 정도로서의 사건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을 바탕으로 사건 자체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요구하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대중기피 현상을 보였던 것 등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성폭력 사건이 가능했던 곳, 사건이 일어나도 가벼운 징계 조치 정도만이 가능한 곳 그리고 사건이 공론화 되면 피해자인 여군의 행실을 둘러싼 담론만이 무수해지는 곳. 철저하게 위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군대내에서 여군의 성적대상화는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문화적 Area 속에서도 결코 이례적이지 않은 사건과 사건 이후의 과정들에 의해 확고한 검증은 이루고 있다.

예상 가능했던 담론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언제나 사건 자체와 동떨어진 담론들을 동반한다. 이번 군대내 성폭력 역시 예외일 수 없었으며, 언제나처럼 기본적인 논의조차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게 아니었나 싶다.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 '도덕성의 실추'의 관점, '일반화된 여군에 대한 저열한 공격'들을 중심으로 여러 담론들이 줄을 이었다.

我作我作
아작아작
군대 내 성폭력

소식지
Frying Solo 단독비행

살맛나는 세상

'만약 그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의 담론은 여전하다. 모든 사회 구조와 관계를 거부한 채 상황적 객관성만을 인정하는 이러한 담론들은 대다수가 성폭력 사건에서 말해지는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피해사실을 왜곡하며 사건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 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으로 우리의 딸들 혹은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군대의 장군이라는 개념들인데, 우리의 딸? 이때의 우리는 딸들은 그들의 여성으로서의 존재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라는 소속 개념이 더욱 무게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군대의 장군만 아니었다라도 용서될 수 있었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언제나처럼 이런 사건과 담론은 피해자가 속해있는 공간의 모든 여성을 일반화시킨 상태에서의 저열한 공격이 진행된다. 심지어 리더쉽의 부족등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부러 사건을 신고했다는 저열한 비난이나 여군 대다수가 전문성이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군의 능력 때문이라는 일반화된 여군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너무나 쉬운 대답

이번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접근들은 부적절할 수 밖에 없다. 아니 오히려 본질에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군대라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위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의해 여군이 성폭력을 당했다. 이것은 어떠한 객관성을 포장한 구차한 변명으로도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가해 장군과 피해 여군의 명확한 권력 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이었기에 왜 그 당시에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건을 키웠다는 식으로 결국 성폭력 사건임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여성의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행위이며 여성에게 커다란 폭력으로 기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판단될 수 없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주관에 근거한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사건 해결은 바로 이러한 (대다수가 여성인) 피해 사실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중위 사건의 고소로 육군은 현역 사단장 김소장을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정직 3개월이라는 가벼운 조치를 내렸으며, 정직 기간 중의 가해 장군의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 여군을 둘러싼 행실에 대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어 아직 사건은 완결된 상황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이미 법제도의 틀 내에서의 해결이 중심을 이루게 되어 대다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론의 영역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중위를 바라보는 것에 불과했던 것 같다. 이중위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논의와 담론의 지형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독비행

자치적 운영원리/여성주의적 질서에 의한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살맛#1(홍집형국)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1' 운영 단상

▶ 현재의 살맛나는 세상, 모두를 괴롭히는 세상

SM은 학여운간의 연대를 통해 위력적인 조직력에 기반한 정치활동과 캠프 여성운동을 현실화하는 위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SM은 단위들의 자활력과 기획력이 창출되고 있지 못한 채, 시기적 대응과 단발성 사업이 집국을 중심으로 기획, 총괄되는 것이 사실이다. 각 단위, 그리고 개인의 공동 발의와 기획이라는 연대체의 기본 전제는 늘 '운영 평가'속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 지난한 언급과 단위 자활력 확보라는 당위만을 남겨왔다. 단위 자활력 확보와 여성 연대의 경험 창출, 급진적 정치 활동 기획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직접 기획과 직접 행동의 구심점으로서 SM을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집국의 역할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단위들의 의존이 상대적으로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SM의 최대 과제로서 운영원리와 질서에의 구체적 내용과 현실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단위 정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소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관성화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 단위가 주체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집국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치활동과 시기별 활동의 기획안과 심지어 선전문안까지 내주고 있는 상황들에 관성이 붙어버린 것이다. 단위와 집국간의 합의된 관성에 대한 과감한 해체를 위한 실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치적 질서를 SM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강력한 공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논의 만으로는 실 내용이 고민되지 않으니, 실질적인 체계 전환을 통해 자치적 운영원리를 하나하나 실현해 갈 수 있겠다.

수평적 연대를 통한 위력적 조직력 확보

급진적/반체제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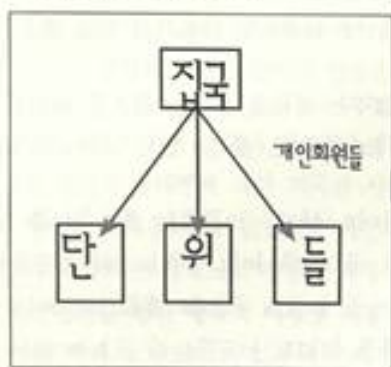
자치적 운영원리/여성주의적 질서 경험을 통한 주체화

2001' 살맛나는 세상

운영 단상

여성주의적 질서/ 자치적 운영원리에 의한 살맛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다.



운영 틀의 변화가 실질적인 질서변화를 결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속에서의 과정은 한계적일 수 있겠다.

▶ 살맛나는 세상 운영

1. 정기회의

: 주 1회를 기본으로 단위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진행

① 단위 간/단위와 SM#1간의 일상적 소통

② 사안 총론 세미나 총화 및 논의 조직화

③ 캠프 여성운동 기획 및 정치활동 기획의 배치와 삼중적용 모색

2. 간담회

: 단위와 정세적 요구에 의해 유동성있게 진행

① 단위 안정화를 위한 자료 및 실사 유동

② 여학운/학운 진영 동향과 사회단체 동향 공유 및 정세에 입각한 활동계획 공유

③ 작은 실무 워크샵

3. 총회

: 년 2회 활동계획/ 살맛 운영 구상

4. 기타 단위 혹은 SM#1의 발의에 의한 비상 회의

5. SM#1의 위상과 역할

각 단위들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팀으로서 내부 운영 역시 팀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개인회원들이 상황과 역량에 따라 SM#1내의 팀으로 편성된다.

역할에 있어서 과도한 변화는 불가능하기에, 살맛 정기회의의 주제, 소식지 사업 총괄, 독자적 정치활동 기획과 SM 계획 및 평가 총화, SM 세미나 기획 및 운영, SM 정치활동 논의 조직화, 정세 클리핑, 단위 활동의 실내용 자료화 및 축적, 단위간 소통과 연대를 위한 연사, 단위 간담회 주제, 등 의 역할 등을 담당한다. 즉 단위가 캠프 여성운동에 중심을 둔다면 SM#1은 사회일반과 학운진영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① 정세팀 : 학여운 동향과 학운진영 정세, 사회 일반 정세에 대한 논의안 준비

② 통신주체 학여운 연사주체 논쟁모 주체 SM 운영주체

소식지

Frying Solo 단독비행

살맛나는 세상

한 때는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될 딸들에게...



기억에서 역사로

엘리너 맑스는 소녀시절부터 강한 정치의식 속에서 자라왔으며 노동계급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아버지와 함께 나눈 그녀는 영국에서 사회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자마자 이 운동에 뛰어들어 활약했다. 그녀의 생애는 아버지에 의해 창시된 대의를 위해 바쳐진 것이었으며 그녀의 일생은 헌신과 애정 그리고 자기 희생적 열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었다. 유명한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덕분에 못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운동에 참가했지만 그녀 또한 사회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위 개화되었다는 사회주의 운동권 내부에서조차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기희생의 감정 및 무력감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살아서는 마르크스 딸로 더 잘 알려졌으며 죽어서는 그녀의 비참한 사생활 때문에 더 잘 기억되었다. 그녀의 탄생과 죽음은 그녀의 진정한 정치적 공헌을 극소화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엘리너는 1855년 1월 16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난 직후 태어난 아들이 사망하고 실의에 빠졌던 마르크스는 엘리너가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죽은 아들과 동일시하며 키웠다. 그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은 엘리너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동시에 무의식중에 죽은 동생과 동일시하는 한편 자신이 마르크스를 닮았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녀로 하여금 정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녀가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 다른 한가지 요소는 어린시절부터 받았던 엄청난 정치 교육이 있었다. 마르크스는 엘리너의 학습을 지도하는데 자신의 엄청난 힘을 쏟았으며 그녀 또한 그의 정치교육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놀라운 의욕을 보였다.

"그녀는 살아서는 마르크스 딸로 더 잘 알려졌으며 죽어서는 그녀의 비참한 사생활 때문에 더 잘 기억되었다. 그녀의 탄생과 죽음은 그녀의 진정한 정치적 공헌을 극소화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유명한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덕분에 못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운동에 참가했지만 그녀 또한 사회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위 개화되었다는 사회주의 운동권 내부에서조차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기희생의 감정 및 무력감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다."

기억에서
역사로

엘리너 맑스와의 대화

살아있는 세상

소식지

Flying Solo 단독비행

위의 두가지 요소 외에 엘리너의 정치적 생애를 살펴보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제시된 여성역할의 모델이다. 이러한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그녀의 정치적 관심은 일시적 현상으로 그쳤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 인물은 그녀의 어머니 제니 마르크스이다. 엘리너는 그녀 부모사이에 맺어진 결혼의 동반자적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인물은 정치적으로 강렬한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타인에의 헌신과 자기 희생으로 끝마친 여성이다. 그녀는 마르크스 집안의 가정부 헬레네 '렌넬' 테무트 이다. 그녀는 평생 마르크스 집안을 향한 맹목적 사랑을 베풀었다. 세 번째 인물 역시 앞의 두 여성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정치 의식과 더불어 자기 희생적 헌신성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리지 번즈는 엘리너에게 정통을 벗어난 성관계의 격의없는 개방성을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아일랜드의 민족문제를 소개해주었다.

1871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파리 포문'은 이후 엘리너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파리 망명객들은 끊임없이 마르크스집으로 찾아왔으며 포문들의 곤경에 엘리너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 엘리너가 최초로 하나의 대의에 대한 개인적 헌신을 시도하였다.

엘리너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폴리트 프루스페 올리비에 리쌍가레와 악혼을 하였으며 그 관계는 9년을 지속되다 끝났다. 이것은 엘리너로 하여금 처음으로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경험케 해주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신봉하는 하나의 대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이 일은 그녀가 마르크스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찾으려는 최초의 시도로 평가 될 수 있다.

1884년 그녀는 에드워드 에이블링과 법률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결혼관계에 들어간다. 엘리너를 그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도 하나의 대의를 위해 동지적으로 결속되어있던 자기 부모의 모델을 따르고자 소망했다. 그러나 에이블링은 아내가 있었으며 '악명높은 방탕아' '알콜중독' '방탕한 여자관계' '재정적 낭비' '무책임성' 등으로 평가되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엘리너가 그에게 일침감을 느낀 것은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관심사 때문이었다.

엘리너는 자칭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격렬한 논쟁과 권력 투쟁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동맹에서 손을 떼고 영국의 빈민들을 조직, 선동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회주의야말로 그녀 주변에서 목격되는 불평등과 비참함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 같은 뜻으로 신조합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조합주의자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그녀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을 느꼈다.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이 그녀에게는 특별히 중요하였다. 여성들은 회합에 참가하거나 연설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을 조직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그녀는 여러 공장에서 여성집단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밖에도 그녀는 19세기 말 영국 최초의 노동절 행사 계획을 만들어내는 일과 1일 8시간 노동제를 위한 조직적 운동이라는 큰 활동으로 두드러지는 인물이 되었다.

엘리너 마르크스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교육과 조직활동을 했지만 편집자, 번역자로서도 기여하였다. 그녀는 영어, 불어, 독일에어 능통했기 때문에 통역자로서 탁월하다는 평을 들었으며 뛰어난 능력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한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운동을 도울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겸손했고 자기 희생적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들은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범, 조용하고 자기 희생적인 여성상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엘리너의 참을성 있는 헌신,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신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감탄할 만한 자기 극복 등은 그 당시 사회주의 진영에서 거드름이나 피우고 자랑이나 일삼는 남성들의 모습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뤘다.

엘리너는 제2의 사랑이었던 문학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19세기 말 유럽 여성들의 저항의식을 반영한 작품은 어느 것이든 열렬히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여성의 경우 개인적인 생활태도 자체가 정치적 선언이 된다는 사실을 좀더 명쾌하게 깨닫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여성들이 역

압박은 이유의 근원은 경제적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전통노선을 따랐지만 마르크스나 엥겔스보다는 직선적이었다. 그녀는 성적 만족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부부조아 계급의 만혼제도가 존경받는 여성에게 강요하는 '부자연스러운 순결'을 비난했다.

에이블링과의 관계는 그녀의 실질적인 정치적 업적이 뒤늦게 인정받게 됨과 동시에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었다. 에이블링의 명성은 형편없이 나빠져 있었고 그와의 접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평가들 속에서 엘리너의 변함없는 헌신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위인들이 비방을 당해왔다는 사실 덕분에 에이블링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으며 그들의 결혼이 진실되고 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그녀가 그와의 관계에 집착했던 것은 내조자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에 자신을 얼마나 가깝게 일치시키려 했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에이블링은 엘리너를 마르크스의 딸이 아닌 엘리너 자신으로 대접해 주었고 그녀는 이것에 끌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의 관계가 끝나기 몇 년 동안 에이블링은 건강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엘리너의 헌신적인 애정을 더욱 깊어갔다. 이에 에이블링에 대한 비난은 높아지는 반대로 그녀의 미덕에 대한 칭송은 높아졌다.

에이블링은 그녀의 노력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아프기 전에 정식 아내가 죽자 엘리너가 아닌 다른 여자와 법률상의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이 소식을 안 엘리너는 자살을 하였다. 에이블링은 그녀의 죽음에는 무관심 했으며 그녀의 재산과 돈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엘리너 마르크스는 한 남자의 딸임과 동시에 다른 남자의 희생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녀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녀의 실질적인 업적은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그늘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엘리너 마르크스는 담대하고 용기있는 여성이었고 굉장한 매력과 번쩍이는 지성 그리고 넘치는 자비의 여성으로 평가 되었다. 그녀가 회의를 극복하고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역할을 주저없이 맡았더라면,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시대가 강요하는 엄격한 여성역할의 전형을 무시했다면 그녀는 발전하는 노동운동을 그녀 특유의 애정으로 감싸면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마르크스주의 운동사에서 강렬한 여성혁명가로 영원히 기억되는 데까지

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녀가 세상을 뜬 후 사회주의가 그녀의 정신과 모범적인 모습을 상실함으로써 그 만큼 빈약해 진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재능있는 여성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용감히 투쟁했으며, 또 업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은 잊혀졌다.

그들 뒤에 오는 여성들은 전부 다시 시작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다



단독비행

자극을 통한 동기유발을 위하여

새내기들과 함께

이번 소식지에는 새내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리안을 소개합니다. 시안별, 사상사 세미나 커리안은 통신으로 제출됩니다



세미나 커리

[세 여성학 강의(동남)]

좀 이론적이라 재미는 없을 듯. 선입견이 없고 편협하지 않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차별주의가 존재하는 나, 라든가 '과연 이 사회는 가부장적인가?'라는 질문을 앞으론 하지 않게 될 터이다. 물론 이 책 전부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책의 장점은 여러 통계적 자료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새내기용으로 간단히 쓸만한 부분은 남성성/여성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종류에 대해 서술해 놓은 뒷부분 정도겠다.

[섹슈얼리티 강의(동남)]

혹 일터의 문제라면 모르되, 성과 사랑만은 비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새내기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성애 관계에 대한 환상도 많을 때다. 그러나 대체로 한번 씩은 친밀감과 화합을 나눌 자리의 분위기 깨기 싫어 찻집에도 조용히 인내해 본 경험이 있을 테고 애매하고 막연하던 부분을 콕콕 찌어주니 막힌 데가 시원히 풀리니 어떤 새내기들은 짜릿해 하며 열심일 듯. 1학년 1학기 쯤에 다른 주제들과 함께 다루려면 '성폭력'이나 '남성의 섹슈얼리티' 등을 커리로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별첨되어 있는 '여성의 성적 권리장전'은 각종 새내기용 피를 만들거나 성교육을 하거나 교양학교 등에서 간단히 토론 자료로 이용하기 좋다. 참, 2학기 쯤 이 책 한 권을 3회 정도에 걸쳐 통째로 섹슈얼리티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다.

【여성 몸 성장유발화 또 하나의 문화】

상기한 책이 지나치게 무겁고 진지해 보인다고 생각된다면 이 책을 보는 것도 좋다. 모든 인종적, 문화적, 계급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에 관한 한 유사한 경험들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다만 이 책의 문제점은 한 두 챕터를 뽑아쓰기에 마땅치 않은 구석들이 많고 약간은 단원들마다 겹치는 구석도 있어 아예 첨부터 끝까지 읽고 세미나를 하거나 2회로 나누어 해야할 듯하다.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조현애정 또 하나의 문화)】

90년대 이후의 세상 흐름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놓은 책이다. 매우 쉬운 말로 기막힌 통찰력을 과시하는 것이 이 책을 비롯한 '또 하나의 문화' 시리즈들의 장점이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지겨울 것이라 보는 자상한 선배라면... 여기서 할 만한 부분으로 '정보자본주의와 여성'을 권한다. 워낙 정보화 시대를 여성이 주름잡을 거라고 떠들어대는 목소리 때문이다.

【섹스북(아멘트 ? 1)】

제목 덕에 눈을 반짝 빛내며 책 찾으러 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책은 침착하게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야 한다. 구성에 식의 그런 보수적 성담론과는 많이 달라서 새내기들이 신선한 충격을 느끼며 접근할 수 있어 좋다. 이 책은 몇 토막 쳐서 세미나 하기는 맞하고 그러므로 일단 선배가 토론해 볼만한 주제들을 정리한 후 새내기들의 생각을 반영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여성 망명 정부에 대한 공상(스타이닝 현실문화연구)】

유쾌한 글들이다. 글쓴이는 미국의 여성주의 잡지 'Ms'의 초대 편집장이다. 딱딱한 글들이 싫다면 이것 먼저 읽어봐도 좋다. 특히 '남자가 댄스를 한다면'을 강력 추천! 그 역시 일회성 교

양하고 등에서 써먹기 안성맞춤이다. '히틀러가 살아있다면...' '여성의 육체를 찬양하며'도 권할만 하지만 다른 글들은 워낙 개인적인 수필이거나 특정 인물에 관한 거라,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기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본다.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오조영란 창작과 비평사)】

여기서 비판하는 '남성의 과학'이란 단지 과학자 집단이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현실만이 아니다. 혹시 가부장 파시스트와 논쟁하다가 '그건 과학적 진리야'라는 말에 말문이 막힌 경험이 있다면 꼭 읽어보길. 이공계열 새내기들이 많을 때 해 볼만 하다. 댄 뒤의 인물 이야기들이야 무시해버리고 내용도 전반적으로 단순, 평이하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타브라스 또 하나의 문화)】

'성적 차이'를 강조한 '문화주의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이 책이 취하는 관점에는 필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설불리 결론을 내고 싶지는 않다. 이 책 끝까지 읽다보면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와도 문제 의식이 만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성차의 문제에 대해 새내기들과 이야기하고 싶거든, 처음 두 챕터만 보면 된다. 워낙 글자가 작고 뻑뻑하게 내용이 채워진 책이라 전문 용어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뒤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셔널리즘과 젠더(우에노 치즈코, 박종철 출판사)】

먼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대해 새내기들과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책을 읽다보면 논쟁을 할만한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난다. 낮은 목소리 등의 영화와 함께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후 기지촌 여성의 문제와도 연결지어 2회 세미나로 구상한다면 좋을 것 같다.

1) 으음, 출판사를 까먹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라... 제목 덕에 그냥 '주세오'함 된다.

2) 흔하들 '일본군 종군 위안부'라고 하지요.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공감)】

아마 이 책까지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듯 하지만...발해독을 하는 것이 좋음. 메이데이 이후에 궁금증이 많아진 새내기를 데리고 방중 세미나 한번 정도? 전체 내용을 따로 요약, 발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외에는 불필요하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민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여성을, 특히 제3세계 여성을 어떻게 괴롭히는지까지 죽 이야기할 수 있다.

【해방은 결코 안가될 수 없다(논문:시타)】

이거 통신에 떠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워낙 유명한 논문이니까. 메이데이 교양 자료로 안성맞춤이다. 예전의 '여성'자료집에도 나와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인권 운동사】

매매춘과 기지촌 문제, 장애 여성의 문제 등을 다루고 싶다면 추천한다. 워낙 두껍고 무거운 책이라 후배들더러 사라 할 수는 없고 빌려다 복사해서 나눠주길. 선배도 사기힘든 책일걸

쉬어가는 페이지는 일상에서 여성으로서의 경험들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곳입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혹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운이 좋게도 지하철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물론 출퇴근시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당신은 일없이 노는 백조(혹 백수)이거나 노상 낮잠을 자다가 한낮에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으름뱅이다. 어쨌든 여러분 바로 옆에는 한 사람이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다고 하자. 여러분은 목적지까지 가는 일이 매우 즐겁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출입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신문을 한쪽으로 말아쥐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온다. 그리고는 둘레둘레 '내 자리 어딴냐?' 주위를 살피보고 하필 당신 옆자리로 와서는 턱 주저앉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여러분은 자신의 공간이 갑자기 이 아저씨가 앉던 때의 3분의 2로(심할 때는 절반이 되기도)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무릎을 붙이게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소곳이 무릎을 붙여 앉은 사람이라도 별 수는 없을거다. 왜냐하면 이 아저씨들은 어떻게든 빈 공간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옆자리의 아저씨가 다리를 썩 벌리고 앉았다면 한번 있는 힘을 다해 당신 다리를 벌려보라. 옆자리 인간의 다리살이 닿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유쾌했던 기분은 모두 잡쳐버린다. 있는 힘을 다 쓰기가 뭣하다고? 그렇다면 조심스레 다리에 힘을 주어보시길. 옛! 참엔 저 쪽 다리가 움찔한다. 그래서 약 2-3cm의 빈 공간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내 다리가 1cm를 이동하기도 전에 저쪽 다리가 자동적으로 도로 썩 퍼진다. 옥, 저 살덩이의 갑축으로 볼 때 도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썩 흥측한 해충 한 마리가 뭘 잘못 먹고 저토록 커져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일까? 내키지 않지만, 다시 다리에 힘을 주어본다. 이번에는 저쪽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어떤 때는 's'자가 들어간 외마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냥 포기하고 무릎을 딱 붙여 앉는다. 이제 저쪽의 다리는 거의 180도로 퍼진다.

어떤 분은 귀찮기도 하고 공공장소인데 신경도 쓰이고 해서 가만히는 있는데 속만 끓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이기적인 발상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다리를 썩 벌리고 앉는 이유에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가? 기어코 다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눈물겨운 속사정이? 한 번 생각해 보라. 필경 그들의 다리 사이에는 다리를 벌리게 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 그것은 이름하여 ...

쉬어가는
페이지

산중 기생충 출현 Zot 사상충이 늘고 있다

소식지
Frying Solo 단독비행

여러분 중에 성격이 팔팔하다 싶은 사람은 직접 대놓고 뭐라 한 마디 해 줬을지도 모른다. 어떤 분은 귀찮기도 하고 공공장소인데 신경도 쓰이고 해서 가만히는 있는데 속만 끓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이기적인 발상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다리를 썩 벌리고 앉는 이유에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가? 기어코 다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눈물겨운 속사정이? 한 번 생각해 보라. 필경 그들의 다리 사이에는 다리를 벌리게 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 그것은 이름하여

'거시기!' 그렇다면 얼마나 크길래 저러한가? 야구공? 야자열매? 아니면 축구공?

이제야 사명감이 발동한다. 과연 그렇게 커진 이유가 뭘까? 여기 유력한 가설 하나. 혹시 기생충학 슬라이드를 줄지 않고 본 적이 있는지. 참혹하게 elephantiasis¹⁾된 사지머 성기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들의 증세가 어떤 종류의 기생충 때문이라 가정하고 한번 그들의 거시기를 천자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도말해서 관찰해 보자. 뭐가 보이는가?

아니, 천자하자마자 흰색 액체가 팔팔 쏟아진다구? 그렇다면 비커에 담는다. 액체 위에 둥둥 뜨는 것은? 참 못생긴 자잘한 벌레들이다. 이것들은 국내의 미기록종으로 여러분은 이제 기생충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다. 명명하노니 Zot사상충! 그러나 이걸 어쨌든 듣는 약이 하나도 없다. 외과적 적출만이 소용이 있을 듯하다. 그런데 찬찬히 환자들을 관찰하니 그것들은 모두 거시기(zot)를 벗어나지 않는다. 찌파찌파안! 이제 외과적으로 병소(zot)를 적출하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사상충Zot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 어떠한지?

1) 사상충류는 꼭 사지나 성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 기다란 계생충은 1미터가 넘기도 피부 밑을 헤집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 나온 림프액이 갈 곳이 없으면 세포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팔 다리를 '코끼리 다리'처럼 뭉뚱 부게 만들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농촌 주민들의 페니스나 유방이 렉비공만큼 부어오른 모습보면 끔찍합니다.